東亞日報
二日夕刊 本紙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林宜聖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一九〇〇 光化門
新聞價 廣告料

農村의 소리를 드름
問題는 어데에?

一

未曾有의 穀價暴落은 朝鮮의 全天地를 恐慌의 禍中에 헤매게 한다。外來의 商品을 輸移入及 販賣함으로써 艱辛히 繁榮의 길 그림자라도 나타내던 商業界도 農村의 消費力의 減退에 依하야 漸次萎縮의 狀態에 入하얏다。實로 農村의 苦悶은 朝鮮全民衆의 苦悶으로서 吾人의 農村問題에 關心을 不絕하는것도 이 所以이다 이에 本社는 이 重大事를 當面하야 或은 倉島에 六百萬石 貸上을 促한바 잇고 水納制 依納의 延納을 主張한바 잇섯거니와 新年을 期하야는 特히 農村의 實情을 調査키 爲하야 或은 小作人을 代身하야 地主에게 그 對策을 뭇고 或은 支分局及 該方面 有力者에게 農村實狀 及 對策을 調査、陳述케도 하엿다。이에 그 大部分의 回答을 어덧슴으로 그 全部를 紙上에 紹介하거니와 各人이 그 調査를 接할때 그에 對한 感慨도 또한 적지안타。

二

첫재 小作人을 代身하야 各地方 代表的 地主들에게 質問한 作料、作權、地稅에 對한 對答을 볼것이다。이 質問에 對하야 或은 此하고 或은 彼하야 一律的인 回答은 엇지 못하엿스나 大概 가튼 傾向인것만은 看取할수잇다。即 그中 첫재 債務에 對해서는 或은 猶豫치 못하겟다고하며 或은 催促도 안켓다하는 例外는 잇지마는 大概 小作人에게 信賴關係가 업다거나 잇다하면 納期하겟다는 것이오 둘재 作料에 對해서도 前年보다 다를것이 없이 折半 又는 契約의 作料로 徵收하겟다 함이 大部分이며、셋재 作權도 小作人의 特別한 犯過가 없는 동안 移動치 않겟다 하얏다。그리고 넷재 地稅負擔에 對해서도 변혁의 地稅 小作人 負擔의 地主도 잇스나 大概는 地稅는 地主負擔、肥料는 折半、又는 小作人負擔이어서 所謂 悉皆地主라 할 만한 地主는 적다。水利組合費를 누가 負擔하느냐하는것은 뭇지 안햇스나 大概는 地主作人間의 分擔이란것이 通則이니 이것도 現在 모든것을 折半하는 公正하다 認하는 小作制度에서는 또한 地主의 恩惠이 아니다。

三

그런데 다시 細農의 實生活을 調査한 本社支分局及 諸方面 有志의 回答은 如何하얏는가。이 對答에는 「漸」律的이어서 或은 小農의 破滅이라하고 或은 中農의 沒落이라 하얏스며 或은 地主나 作人이 다가튼 困難이라 하고 或은 南北에의 必然한 流離라 하야 農村疲弊를 말하얏다。或은 數字를 들어 或은 表面上、實情을 들어 이것을 說明햇지만 歸하는바 現實을 그대로 回答한것만은 事實이다。그러면 이것이 [illegible]의 所致인가。地主들의 所謂 對答이 너무도 地稀主義、相互主義다。小作人中心의 解放하기에는 그들의 勤勞가 너무도 苛酷하다。그리고 이것을 自然에게 돌리기에는 人間의 利己主義가 너무도 强[illegible]이다。그러면 結局 이것은 누구의 所致인가。

四

吾人은 이것을 現代經濟組織의 缺陷이라 한다。無統制하게 生産되는 穀物의 價格이 無計劃하게 生産되는 穀物의 不均衡을 抗議하지 안을수 업다。이리하야 小作爭議가 이러나지 아니치 못하며 或은 凶作의 凶年을 다시 或은 豐作의 凶年으로 되지안는가。地上는 穀價의 低落에 作人은 收穫以外에 [illegible] 한 본시 地主가 政府에 追하야 土地國家買收를 提議한者 이 [illegible] 小作人이 漸次 그 負擔을 輕減하라 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實로 深刻化하는 社會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는 日本가튼 나라도 中論을 하기에 이르렀다。吾人은 이 報告를 볼때 朝鮮의 農村問題의 大하옴을 늣기고 新年부터 이 問題解決에 一層 努力하라 約束한다。

一九三〇年度의 民國外交總決算
八個項의 成績을 들어 詳細說明
◇王外交部長의 發表

【南京特信】 國民政府가 南京에 遷都한지 四個年間에 亘한 外交의 總決算報告로 外交部長王正廷氏는 去十二月二十六日附로 如左히 發表하얏다

國民政府가 南京에 遷都한지 四個年이 되는 오날까지 本部의 大政方針은 모다 三全大會及 三中全會에 依하야 不平等條約의 廢止와 國際的 地位의 向上으로써 努力을 삼엇다 그러하야 本部의 精神은 從來의 消極的 態度를 버리고 積極的 進取策을 取하얏다 다만 事實에 잇서서는 凡事의 成敗가 環境과 繼續한 關係를 가지고잇슴으로 外交上勝利를 엇기爲하야는 爲先內政을 修明하여야 될것이다 年來로 內亂이 頻發하야 一九三〇年度 外交成績으로 하야 予定計劃과 比較하면 크게 不滿足하게 되다 即

一、關稅問題 十七年七月에서 同年十二月까지 美、伊、丁、白、英、佛等十一個國과 關稅自主의 新條約이 調印된바 理論上으로는 十八年一月一日부터 關稅自主權을 回收하얏스나 實際上으로는 日中協定이 本年五月에서 調印되고 調印된 中、荷關稅條約의 批准書가 本年十一月十八日에 交換되얏슴으로 關稅自主의 實行은 本年十一月十八日부터 實行하게되엇다

二、租界租借地回收問題 十八年十一月에 鎭江英租界、本年九月十[illegible]日 威海衛英租借地는 本年十月一日에 回收되엇스며 [illegible] 八月에 調印되바 不遠接收될바 [illegible] 本年十二月에 回收되엇스나 天津白耳義租界는 十八年八月에 調印되엇고 廣州灣 其他 租借地는 本年十一月에 回收交涉을 要求하얏다

三、法權問題 (甲)有約國中 我國法權의 支配를 受하는 者는 露、獨、墺、芬、波斯、希臘、墨西哥、比아、체크 (乙)我國法權의 支配를 受하려하되 批准을 待하야 實現될者는 波蘭 (丙)舊條約이 滿期되어 新約을 締結하야 治外法權放棄를 約한者는 [illegible] (丁)我國法權의 支配를 受하려하되 治外法權放棄를 즉시 實行할者는 [illegible] (戊)舊約이 滿期되어 新約締結을 協議中인者는 日本、瑞典、比國、丁抹、葡、西班牙等이다

四、平等的新條約締結問題 (一)이미 完成되어 批准된것은 [illegible] 以上의 代表者及 關係者가 [illegible] 十八個月에 [illegible]

五、國際公約 最低賃金制에 關하야 國際郵便、國籍法等公約 [illegible]

六、中館會議問題 四月에 莫斯科에서 開會하기로 決定하고 本年二月 莫德惠를 全權代表로 派遣한바 第一次會議는 十月十一日에 開會되고 第二次會議는 [illegible] 停頓되엇다 中國側은 東三省에 [illegible]

七、領事館整頓 印度、安南等에 [illegible]

八、僑務 (1)英佛荷等各國殖民地에 在한 中國僑民의 活動自由를 交涉 (2)中國僑民의 待遇問題 (3)僑民登錄 (4)僑民教育等 以上八項中 關稅外에는 完全한 解決을 보지못하엿스나 本年中에 [illegible] 休息할수업다 過去一年間 [illegible] 中央은 誠心誠意로 統一

政治犯大赦 元旦에 發令
黨國背反元惡等은 不在此限
◇公布된 七條의 要點

【南京電】 南京政府의 政治犯大赦條例는 元旦에 公布되엇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갓다

第一條 民國十九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의 政治犯은 다 이것을 赦免한다。但 黨國에 背叛한 元惡、悔悟치아니한 共產黨、及 賣國行爲가 잇섯든 者는 此限에 不在함

第二條 政治犯이라는 것은 內亂罪、反革命罪及 此와 性質이 同一한 罪를 指稱함。또한 政治犯嫌疑로 逮捕된 者도 此를 政治犯으로 함

第三條 黨國에 背反한 元惡이라는 것은 左記의 各犯을 指稱함

(甲)民國十一年六月十六日廣州叛變의 元惡(註、陳炯明、葉擧氏等)

(乙)民國十九年九月九日北平에 잇서서 僞政府를 組織코저 하든 元惡(註、閻錫山、馮玉祥、汪精衛氏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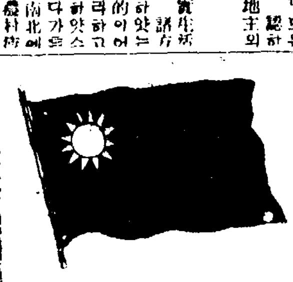
第四條 悔悟치아니하는 共產黨이라는것은 共產黨首要로 自首치아니하는 共產黨員을 指稱함

第五條 賣國行爲는 外患罪、或은 潛行反革命治罪法을 犯한 者及 此와 性質이 가튼 罪를 犯한 者를 指稱함

第六條 政治犯으로 其他의 罪를 兼한者에게 對하야는 其他의 罪는 此를 赦免치 아니함

第七條 本條例에 依하야 赦免된 政治犯은 아직도 發覺되지 안커나 或은 逮捕되지 아니한者일지라도 一律로 赦免하고 逮捕된者는 起訴、未起訴、判決、未判決을 不問하고 高等法院長首席檢察官及 第二人、檢察官一人으로 委員會를 組織하야 釋放與否를 決定한다

民族主義 結實期【三】
一九三一年의 民國
仁王學人



六、軍隊整理問題及共產黨對策

[illegible] 關係部及 各種色彩의 軍隊를 [illegible] 緊張의 合作이 [illegible] 軍事가 아니다 內亂平定으로서 問題는 [illegible] 되는 것으로 아프로는 [illegible] 進行될것이다 [illegible] 或多少의 反抗이 잇슬는지 모르지마는 이미 大勢가 決한 以上 群少軍閥들이 各個로 分裂하야 獨립하여 잇지 못할 것이다 [illegible] 어렵겟지마는 새운 南京에 對하야 勝算이 업는것만은 事實이다。

이리하야 殘餘軍閥의 撲滅運動이 [illegible] 中央軍은 비로소 마음노코 裁軍을 斷行하게될것이니 常備軍이 二百萬이라고하는 世界 最大의 [illegible] 陸軍國인 中國이 裁兵을 [illegible] 經濟理想을 現實化하야 巨大한 [illegible] 國家機構의 確立、軍權統一、文人政治實現의 機會가 [illegible]

共產派의 運動이 [illegible] 本主義를 미러서 나날이 그 勢力을 强大케하야 工人階級과 맛그들과 [illegible] 小市民層이 어느 部分만이 國民運動을 支持 [illegible]

七、建設問題

民主的 國民黨의 理想은 [illegible] 建設問題를 [illegible] 階級의 前途가 注目되는 것이다 中國工人 [illegible] 能할것갓다 여기에 中國共產黨이 [illegible] 南京政府가 孫文의 [illegible] 孫文의 建國大綱及 建國方略을 實現하자하면 적어도 數十年의 [illegible]

◇昨日本文末尾에(完)이라잇슴은 誤植이기訂正함

三十五國網羅하야 一般的軍縮會議
開催地問題로 數案을 審議中
國聯理事會에서 準備

【제네바卅日發電通】 國際聯盟多年의 宿望이 成就되어 一九三一年秋(아마十一月)를 期하야 一般軍縮會議가 開催될것인데 聯盟理事會에 提出되엇든 其期日及場所를 正式決定하기 爲하야 [illegible] 以上의 代表者及 關係者가 來年[illegible] 滯在할 [illegible] 其他 諸國이 [illegible] 第一案은 [illegible] 쥬네브、루쓰안、스위쓰、카안 [illegible] 各部會에 [illegible] 連絡을 取하다

合同！合同！不斷한前道
昨年中의 無產各黨은 此問題로終始
今年展開가 刮目處

【東京發狀康人電】 合同으로 활동을 하게된것이 근원인일것은 勿論이나 또한 他一面에 잇서서의 日本無產政黨運動은 階級鬪爭에 잇서서의 合法運動이、潛行的으로 宣傳하는 非合法運動에 [illegible] 歲月이 經過할것이다 그러나 [illegible] 自然成長의 結果 [illegible] 無產大衆黨、勞農黨、社民黨、大衆黨의 合同 [illegible]

全國大衆黨 安部磯雄 / 九州勤勞黨 大山郁夫 / 山梨農民勞働黨 麻生久 / 中部民衆黨 大石 [illegible] / 統一無產黨 平野力三 / 關西民衆黨 上井 [illegible] / 八木 信一

[illegible] 合法運動의 結成된 [illegible] 非合法運動과 合法運動을 明確히한것이 合法運動에 對하야 큰 效果를 發生하얏다고 볼것이다

共產軍襲來 油房을 燒却

【開島一日發電通】 昨三十一日 午後七時 東寧縣前 民國人의 油房에 共產軍數十名이 襲來하야 數十發을 放火하고 放火하얏다 [illegible]

日本人密航者 二名逮捕調査

【하얼빈卅日發電通】 [illegible] 日本人 二名을 逮捕取調中 [illegible]

日系市民進出 布哇에서
水道局長에 被任

【布哇發電二十八日發聯合】 當地日系市民 水道局長 [illegible] 正式任命되바 이는 日系市民의 政治的進出이라 하야 注目된다

濠洲聯邦政府 移民中止通牒

【캄버라卅日發電通】 濠洲聯邦政府는 卅日 當地駐在 各國總領事에 對하야 近來의 不況으로부터의 移民에 對한 依하면 [illegible] 移民移送은 中止하라는 旨를 通牒하얏다 [illegible]

治安維持法 實施後狀況
學生檢擧增加 勞働者는 減少

【東京二十日發聯合】 嚴罰主義로 改正에 依하야 共產主義運動의 萠芽를 除去하고 또 其發生 [illegible]

昭和三年 維持法改正以前의 [illegible] 昭和二年 維持法施行以前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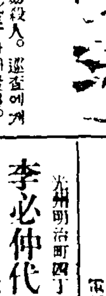
豫算制確立 財政更生劃策
對內今後問題는 財政에 注重
經濟建設의 第一步

【南京特電】 國民政府는 內外國際資本勢力에 [illegible] 國家財政 [illegible] 全國各省에 一大革新을 [illegible] 經濟建設 [illegible] 國民經濟上 重大 [illegible] 財政革新을 對內問題의 中心으로 하얏다

辭令

成鏡北道慶興郡雄基面長 山崎新太郎
奏任官待遇

橫說竪說



□ 今年은 新年에 年賀狀 二百三十萬張、늘어도 생긴 格。

□ 醉巡查 拔劍殺人。巡查에게 술대접은 從此로 하지말일。

□ 醉中行事라、罪는 어데에？ 速斷은 어렵지만 「술」과 「사람」과 「罪」中의 하나。

□ 「刑務所에 라디오」、日本서도 못근다。「極東放送」이 念慮 업슬가？

謹賀新年
◇光州◇

辯護士 宋和植 光州明治町五丁目 電話一〇五

金相昱 光州大正町

校主 崔善鎭 光州私立普通學校

全南道評議員 吳憲昌 光州本町三丁目

朴夏昌 光州大正町

私立須彼亞女學校 光州楊林 電話四二四

孫鍾彩 光州社町

池昌宣 光州明治町

綢緞布木商 大昌商會 光州本町四丁目 電話七

李必仲代書所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五三

平和堂藥房 光州本町五丁目 洋藥品有名賣藥 電話六

各種料理 玉之家 光州南町 電話一三六

金銀堂 光州本町五丁目 金銀各種 大衆時計 寶石指環 主 金泳根

光城洋靴店 光州本町四丁目 電話六六四

東亞木工所 高光寅 光州本町四丁目

綢緞布木商 源昌商會 光州本町四丁目 長電九六六

林鶴雲商店 光州本町四丁目 各種木物 製造各種 陳物婚具

綢緞布木商 南昌商會 光州本町四丁目 長電二五〇

姜泰成商會 光州本町四丁目

東亞婦人商會 光州支店 光州本町三丁目 電話二二〇

女子洋服店 主 禹元模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五三三

女醫 玄德信醫院 光州南町 電話四五五

株式會社 湖南銀行 全南光州
頭取 玄俊鎬 私宅電話二六六
支配人 金信錫 私宅電話二三一
副支配人 李秉欽 私宅電話二四九
調査課長兼庶務課長代理 鄭[illegible]
支配人代理 沈鎭變

湖南產業株式會社 社長 池應鉉 支配人 康道成 電話三二五

內外國藥種貿易商 三山堂大藥舖 光州本町五丁目 主 劉[illegible] 電話六一一 振替京城九一一

中央醫院 金興悅 光州本町四丁目 電話三三

瑞石醫院 崔泳旭 光州黃金町 電話七〇七

朝鮮料理 新光園 全南光州 電話五二六

全羅南道廳 食堂員一同

光州金曜會

太陽醫院 靑輕煥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四一六

春園寫眞館 梁在業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六三〇

超ディーゼル 石油發動機 全羅南北道 總代理店 合名會社 銀杏商行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六[illegible]九

會席料理 仕出し 昌榮亭 全南光州 電話四一三

ClibPDF - www.fastio.com

銀世界이룬長安

【上】애들의눈작난 【下】미끄러운길바닥

雪飛하는年賀郵便 每人當平均六枚

◇전황도모르는년하우편◇ 二百三十一萬餘通

신미년 정월 초하룻날四十만인은 년하우편트별취급을 시작한 구가 새해를맞는 대경성장안에 사년섣달 二十일부터 三十一일 배달된 신미년의 아름다운모 까지가 二백六十二만一천五백 으고 사업성취하고 그러고장수 九十六장으로 그전년보다四 하라는 신년축하장의 수효가다 분九리나 증가하얏스며 또청직 첫군대의 우편국을 통하야二백 하게 청월초하룻날에 「근하신 三十一만九천八백十八장으로이 년날을 써온사람노상당하야장수 것을 배달하는 二백배달부의긔 가 十五만一천 배五十七통 각이 눈오는 거리를헤치며날렷다 니엇다 二백二十여만장이라하 에달하야 이날만의 수효를친너 면 경성인구를 어린애젓먹이합 그날과 비교하면 九분四리의수 하야 四十만치고 매명평균여섯 가이오 섯달二十일이래 청원로 장의 평균인 셈유이나 거년에 하룻날까지의접수를합에하며 비하면 一분九리나 감소하얏 계가 배九十七만四천 다 그리고 경성에서 발송한것 十三동의다수이다

復職을聲明코 裡面으론解職

교장의 태도에 더욱분개 開城學堂紛糾事件

개성에잇는 개성학당 상업학교 (開城學堂商業學校)의분규문제 는 아즉도 해결의 희망이 업고 사태는 첨첨 더 복잡해지는모 양이다 사건의 원인은 동교선 생김지홍(金之弘) 광천(廣田) 동다섯사람이 그학교 경영자인 시내 관수동(觀水洞) 회광교원 (和光敎圓)적야순도(荻野順導) 씨에게대하야

씨는 그진정서에 서명한김지홍(金之弘)광천위길(廣田爲吉) 금성등송(今成滕松)량만식(梁晩植)영목원일(鈴木源一)등 다섯사람에게대하야 단연 퇴직을 명해슴으로 그교원들은 사긔듯이 요구가 정당함에 복구하고 그와가튼 가혹한 처분까지내리는 것은 교장의 횡포라하야 반칭을 요구해든바 지난十二월 一일 교장은 다시 복직을청명해나 이와가티하는일방 학생들도 딸하 동계되고 복직을시켜준다고 성명까지한 교장은 그들에게 직원대우를 하지아니할뿐 아니라 새로교원을 더려와슴으로 그교원들은 비로소 속은줄을알고 지난十二월二十一일서울로와서 적야교장을 면회코저 하나 종래 면회를해주지안흠으로 그들은 할일업시 개성으로 도라가다고한다

職員一同은 聲明書發表

성화당 상업학교교원 다섯사람은그억울한사정을 경긔도 지사와 총독과 그학교를 경영하는 정토종(淨土宗)당국에 진정하는동시에 일에와가튼 성명서를 발표햇다 딸하서 동교학생 一二학년생 백二十명과 三학년생 三十명은 아즉도 공부를못하고 그저놀고잇다고한다

―聲明書―

去十一月職員一同이荻野校長에게提出한 獻議로 말미암어 職員一同에게 退職을 命햇슴으로 우리들은 平和解決을希望하야校長의反省을促하얏스나 本件이 好轉되지못함으로 이에 社會에對하야 聲明한다 (中略)우리는 前後事情이 何等退職을 當할만한 意思行動이 업섯슴으로 社會의健全한 發達을爲하야 正義에비쳐 本問題를解決하라한다 荻野校長의 取한態度는 實로 非敎育, 非宗敎的 態度다 吳까지 그의反省을 促하는同時에 諸彦의賢明한 批判과協力을希望한다

昭和五年十二月二十一日

開城學堂商業學校

職員一同

六十餘女工 工場에殺到

◇待優改善을絶叫 【釜山福島製網工場】

【부산】부산목도(牧島)에잇는 복도제망공장(福島製網工場)녀직공 六十여명은 지난二十一일 오후에

一、賃金을如前하게回復시키고

一、監督山岐某를退職해라

하는등 조항을들어 남빈정(南濱町)에잇는 그회사에 몰려가서 요구를하는동시에 일을 一시 휴식하고 잇는중인데 그요구를 들어 주지안는다면 전긔六十명 직공만은 장차 동맹파업을 단행할 형세이라한다

龍井은又襲擊 四處에衝火

계획적 방화인듯하다 ◇共産黨出沒頻頻

【간도】지난二十八일 오전一시경에 룡정시내 리남립(李南立)외세사람의 집에 공산당이 방화하얏다는데 전긔 四개처에 방화한시간이 동일하고 위치를 보아 계획적방화라하며 이로인하야 동시내인심은 극도로 불안중에 잇다한다

靑蓮寺包圍 靑年七名檢擧

모종결사가 발각되듯 ◇文川署突然活動

【진흥】지난二十一일 아츰부터 돌연히 긴장미를 띄고 활동을 개시한 문천 경찰서(文川警察署)형사대는 동서사범주임의 인솔하에 동군귀산면(龜山面)청련사(靑蓮寺)에 이르러 그절에서 묵고잇는 청년수인 (李少□)외 六명을 검속하야다 아츰아가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치고 말치안흠으로 확실한바는 알수업스나 모방면으로부터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들은모종의 결사(結社)를 맨드러고 동지를 규합하든중 발각되어 그가티 검거된것이라 한다

愛子는銃頭에 愛孫차자彷徨

【敦化事件銃殺者家族】 十四歲少年과六十歲老人

【간도】지난八월一일 돈화(敦化)폭동사건이 발생한후 동포 十八명이 공산당의 혐의로 중국관헌에게총살을당하얏다하은바 아직 세상의괴로움에 새로운이바 어니와 그 피살자 조은화(曹允華)(一八)의 아들 조성호(曹成浩)(一四)는 부모를 일허 버리고 랑을 달하갓다는바 이소식을들은그의 조부 조병욱(曹秉郁)씨가 룡정에서지차 자성호를 맛나지못하고 처참한 형변이엿는데 六十로인으로 옷도 변변치 못한것을 입고 만주치운바람과 싸워가면서 다시돈화를 향하야 지난二十四일에 출발하얏다한다

酗酒放歌타 拔劍亂刺!

원인은 술먹다 말다툼 巡査殺人事件詳報

【천안】천안경찰서 순사 김순생(金順生)이가 패금(佩劍)으로 수신면 발산리(修身面鉢山里)허성근(許成根)을 살해하야 간한사건에 대하야 그후 알려진바에 의하면 가해자는 별안간 이말리며 어느호매가해자는 피해자와 술을먹으며 소리를하며 노리다가 말다툼이 생기어 패금을 빼어 피해자를 찔러 죽인 것이라 한다

被害者許는 八十翁獨子

피해자의 부친 허원삼(許元三)씨는 八十九세의 로인으로 두눈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이러한일도 잇슴니가 하고 다만 자식하나 바라고 살다가 이러한 변을 당하얏스니 어찌하면 조흘가요 하며 목이메어 말을 이루지못하얏다 한다

巡査殺害한 兩名은遠飛

서수라서에서 취조중이다 ◇從犯兩名만被逮

【웅긔】과보 경흥군서수라서(慶興郡西水羅署)관내 증산동주재소(甑山洞駐在所)순사좌등원삼랑(佐藤元三郞)피살사건에 대하야 범인을 지난二十三일오후八시경에 체포한바 수범은경흥군 송봉동(慶興郡)에 본적을둔 박성민(朴成民)(二)과 동리 (同里)안하준(安河俊)(三) 두명으로판명되엇는데 로령방산동(露領)방면으로 도망하고 종범두명만 체포되엇다 한다

元月元旦出獄者 兩監獄에各一名

설날에 출옥한 사람들 ◇……長期囚의雜犯

만주방에서 방황하다가 출옥한 섣달그믐날 거믄 검방에옥 서 경오세(庚午歲) 제석(除夕)에 만기출옥(滿期出獄)자는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一명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 一명의 종이울리고 다시 그밤이새도록 기다려 새해첫날아츰사 보다二명이엇는데 그들이 모다장기(長期)의 잡수들이엇다 한다

自動車의轢死 【해주】

지난二十一일하오 시경 재령(載寧)으로부터 해주를향하고오든 소화자동차(朝鐵自働車)가 신원역(新院驛)을 못밋처 호가 신원역부근에서 주조봉명의 조서에 어린아해를 치어죽엿다

朝鮮紡織事件 金時烨氏出獄

【부산】작년정월 부산 조선방직회사(朝鮮紡織會社)동맹파업에 외부에서 다수의 격문을 박여서 조선안은 물론 일본각시 로동단체에 발송한것으로말미암아 출판법위반 (出版法違反)으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八개월의 판결을 받고 이래부산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부산합동로동조합(合同勞働組合)간부 김시엽(金時烨)씨는 지난二十일에 만기출옥되엇다

釜山의越獄過歲 七百二十名

【부산】구속(拘束)의몸으로 차디찬철창속에서 과세(過歲)하는사람이 부산에서만 七백二十명이나되는데 그것을 써별하면 다음과갓다 (十二月卅日夜九時現在)

▲釜山刑務所 六七五人

▲釜山警察署 四十五人

▲釜山水上警察署 無

李煒氏特志 一가족을살려

【오산】경부선 오산역전(烏山驛前)에서 어물상(魚物商)을경영하며 일상사회사업에 무한한 동정을하며 오산사회에서 명성이자자한 리위(李煒)씨는 또다시 지난二十五일에 동리임은순(任銀順)이란六十이넘은 가 어린손자를더리고 엄동에갈곳이업서 로상에서 방황하게된것을 가긍이녁여 식구네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도록하엿다한다

消防隊出初式 四일에거행

오는 四일에 시내 훈련원(訓練院)에서 경성부내 소방출초식(消防出初式)을거행한다는바순서는 다음과갓다

一、午前九時開式 一、點檢 一、分列行進 一、演技 一、訓示 一、褒彰式目錄授與 一、解散

長生實話 高齡者生活記

九十平生의疾苦는 瘧疾三個月間뿐

◇粥類은大忌第一嗜는肉膾◇

② 安國洞 安昌吉氏 九二

◇……◇

나는 이러케 늙엇습니다 어떠케 이러 복을만히타섯습니까? 하얏더니 이 침바상궁은 이러케 대답하얏습니다 「누가 아오?! 저절로 오래사니 사는가보다 하지오」 십상 그외 조카메느리 말을 듯더래도 오래 살고저 섭생을 잘한탓도아니오 그러저러 오래산모양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환경이 버저기피 정렴을 지키고 살수 밧게 업는것이 큰 원인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무슨병환은 알으신일이 잇습니까」 하고무럿더니

「한번이지오 한질로 석달동안알엇지오」

언제 알앗느냐고 무름에 대해서는 이저버려서모른다고합니다 실상 그의 긔억력은 극히 약하야 그부모가 언제 죽엇는지 년대도잘 긔억하지 못하고 그 선대(先代)가 어떠하든것도모조리 이저버렷스며 오직 긔억난다고 말하는것은 十三세에 왕십리(往十里)집에서 대비(大妃)가 게신 창덕궁 대궐에 드러왓다가 그후 고종제 이던지 조하하나 요새는 돈이

◇……◇

「마마님은 식성이 조흐시어 무엇이든지 잘잡숩지오」 하는것은 그조카메느리의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하하는것은 륙포(肉脯)와 회(膾)를 비롯하야 육부치는 무엇이나 잘잡수시고 죽(粥)은 새삼스럽게 조하하지안흔다고 생각되는모양입니다

◇……◇

청년시절 돈이 넉넉할때에는 고기를 마음대로먹엇다고합니다 그러나 그전정조카들이 못살고 오래비와아우동생하나가 요서(夭逝)한이래 돈푼이나모앗든것을 그식구들이노라고다 써버리고 요새도 그살림 보아주노라고 그조하하는고기도 맘대로 못먹고 장조림이나조금 씩먹는다고합니다

◇……◇

한질밧게 병을 알어보지못하고 긔억력과 청각이 조곰흐려진하지마는 그외 어성 (語聲)과 식성이며 손가락 놀리는품이라든지가 아즉도여년이만흔듯합니다 아무리치운날이라도 뒤간출입을홀로한다하니장수를축수하야맛당할것 이엿습니다

債鬼督促에 飮毒自殺未遂

【보은】충북보은군읍내 (報恩邑內)에서 과부신청사를하는 부인은 근래 생활이 곤란하야 빗에 졸리든중 빗쟁이의 독촉이 심하야 그만 자살하랴든것이라 한다

卄七個所에 五百卅五名

【中國軍警의側調查한것】 ◇共産黨分配狀態

【간도】최근미듬만한 조측조사에 의하면 동만일대에 잠복한 공산당원이 二十七개소에 나누어 산재하야 잇는데 그총수가 五백三十五명에 달하다고한다

天候

京城 三日 晴一時 昨日最低 零下五、 今日正午 零下 〇、五

日曆

陰十一月十五日 日出 日入

滿潮(仁川) 前後前後

謹賀新年

◇光州◇

全共鐵工所 光州南町九番地 各種自働車部分品及附屬品 各種機械販賣自働車及 各種發動機修繕及修繕 自働車ホロ及ドーテ製作 全南自働車運轉士共務會直營 振替京城一五九一二 電話三四九

光河自動車部 光州明治町四丁目 潭陽、光州、河東直通 主任 李奉煥 電話一〇四

新興酒造場 光州本町四丁目 主 南致豊 電話三六七

司法書士 李圭正 光州本町五丁目

具哲祐 光州大正町

合名會社 全南精米所 光州須奇屋町 電話一三一

全南商會 貨物自動車部 光州明治町四丁目 電話六三五

相信理髮館 光州明治町三丁目

司法書士 金在千 光州明治町五丁目 電話六二一

金奇浩 光州本町

鄭雲苑 光州樓門町東

李啓翼 光州樓門町

趙根元 光州樓門町

奇近燮 光州明治町

奇世哲 光州明治町

南鮮藥業株式會社 光州本町五丁目

朴琪杜 光州明治町

崔錫融 光州明治町

林斗相 光州明治町

曺德煥 光州錦町

李起瑞 光州社町

崔錫休 光州旭町

◇居昌◇

芳賀專治 居昌郡北上駐在所

都相均 居昌郡北上駐在所

面長 李敎文 外職員一同 居昌郡邑外面

松永杏三 居昌郡邑外面駐在所

康秉淳 居昌郡邑外面西邊里

金鎭奎 居昌郡邑外面東邊里

金得鎔 居昌郡神院駐在所

居昌郡神院面事務所 面長 許鉅 會計員 愼鑲範 書記 金世均 同 金興鎔 同 愼宗憲 同 金聲出 同 李泰陽

製酒組合 居昌郡神院面陽地里

校長 李鉉廷 居昌郡神院公立普通學校

製酒組合 居昌郡南下面武陵里

崔鴻烈 居昌郡南下面月谷里

面長 鄭彦錫 外職員一同 居昌郡南下面

面長 辛冕夏 外職員一同 居昌郡主尙面

瀧田幸一 居昌郡主尙駐在所

面長 全永杓 外職員一同 居昌郡馬利面

面長 河泰郁 外職員一同 居昌郡高梯面

製酒組合 居昌郡南下面屯馬里

◇碧潼◇

東門巢旅館 平安北道碧潼郡邑公會堂前 主 須藤ハル

中尾廣作 碧潼警察署長

張錫燦 碧潼郡守

職員一同 碧潼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碧潼郡廳

兒玉智吉

海東商會 主任 金宜善 主 金宜煥

四同印刷所 活版石版、和洋帳簿、和洋紙、カレンダ、各種ネフテル

大和商店 朝鮮平北碧潼邑內 明太、靴類、和洋雜貨及食料品 水陸運送部 主 金明河

職員一同 碧潼郡碧潼面事務所

許規源 平北碧潼邑內

平安北道碧潼邑內 商業代書人 李本三 補助者 金允

ClibPDF - www.fastio.com

外豊內凶한今年農村 其二

米價의 暴落은 小作人에게 가장 深刻한 影響을 준다。一年來 죽도록 일하고도 或은 負債로 或은 生產費의 過多로 그 生產品이 제손에 한줌도 들어 오지 못하고 쓰라린 배를 그대로 움켜쥐고 一年을 지낼 運命에 잇는 小作人이 全農民의 八割이다。이 八割의 小作人이 다시 一年의 生命을 持續하라면 그들에게 살만한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이들에게 小作料를 어써해야되나 負債를 어써해야되나 小作權을 어써해야되나 이것은 小作人의 죽고 사는 問題다。本社는 空前의 大恐慌期를 當하야 地方 支局 分局으로하야금 當地 代表的 地主를 차저 小作人에 對한 諸般關係를 小作人에 對하야 물엇다。이 對答은 써로 朝鮮 全小作人의 죽고 사는 問題를 決定할 問題로알고 널이 이것을 讀者諸位께 公開한다。

細民生活을 어써케하나?

小作人을代身하야 ◇各地方大地主에質함

地稅負擔問題

問、地稅를 貴下가 負擔하는것이 어써하심니까 (地主負擔외에는肥料代와雜種稅)

潭陽 大地主 高鼎柱氏談 自來로 地稅는 作人들이 負擔해오던것인데 今年가튼해에는 勿論 내가가 어려울 것이나 外가저오는것은 밧고 그려치안흐면 代納을 할가합니다

統營 大地主 金琪鳳氏談 地稅는 내가 負擔하나 二毛作의 一部에 限하야 아즉 밧는것이 잇슴니다

羅南 大地主 宋禹淳氏談 地稅金은 모다 내가 負擔합니다 그러고 肥料는 쓰지 안흐니까 問題안됩니다

孟山 大地主 李燦元氏談 地稅는 穀草를 小作이 가지면 小作人이 負擔하고 그러치안흐면 地主가 負擔합니다

兗州 大地主 金炳義氏談 地稅其他 雜種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만일 金肥를 쓰는 境遇에는 半分할 作定입니다

淮陽 東洋產業會社 取役 談 地稅는 會社의 負擔이오 肥料代와 雜種稅는 會社에서 負擔할수업습니다

元山 東拓支店長 渡邊氏談 地稅는 會社負擔이고 肥料代와 雜種稅는 折半式 分擔합니다

谷城 大地主 金振權氏談 地稅는 小作人의 負擔이나 今年가튼해에는 考慮中입니다

鍾城 大地主 金在詩氏談 地稅는 小作人이 負擔하지만 小作料가 四割밧게 안됩니다

昌城 大地主 姜顯銓氏談 稅金도 모다 地主負擔이고 肥料代도 地主가 負擔합니다

居昌 大地主 金采煥氏談 地主는 小作料一石에 對하야 一斗式 바드나 今年가튼 時勢로는 稅金의 三分의一도 안될것입니다

遂安 大地主 鄭海璘氏談 地稅는 半作地는 地主가 負擔하고 賭租地에는 小作人이 負擔케합니다

平康 大地主 李寅龍氏談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는 半分式합니다

谷山 大地主 李河燮氏談 地稅는 내가 負擔하고 肥料代까지 내가 負擔할수 업습니다

榮州 大地主 金恩定氏談 地稅와 雜種稅는 모다 내가 負擔하나 肥料代 가튼것은 關係치 안습니다

江西 大地主 金鍾杰氏談 地稅는 依例 小作人이 負擔하는데 今年이라고 어썰수 업습니다

陝川 大地主 李秉詩氏談 그前부터 地稅는 小作人과 半分式 負擔하얏스니까 今年에도 그럴수 밧게업습니다

陝川 大地主 李在鉉氏談 地稅를 一部作人에게는 全部負擔케하나 看禾할때에 地稅의半만치 小作料를 除하는 關係로 地稅는 小作人에게는 地稅半分을 負擔케하나 亦是 看禾할때에 알아서 決定하오

陝川 大地主 李廷器氏談 地稅半分은 小作人에게 負擔케합니다

陝川 大地主 姜在鉉氏談 地稅半分은 小作人에게 負擔케합니다

光州 大地主 鄭洛教氏談 地稅、公課金은 數年前부터 내가 負擔합니다 그러고 金肥代는 秋收後에 元價로 밧슴니다

光州 大地主 崔相鉉氏談 地稅와 公課金은 地主가 負擔한다하나 其實은 小作人負擔이 되는것입니다 나는 正確히 半分式負擔하도록 하고 金肥는 使用치 못하게합니다

光州 大地主 池應鉉氏談 小作爭議가 甚하던 當初부터 稅金은 내가 負擔하얏스며 金肥는 斷然 하고 堆肥를 쓰도록 합니다

光州 大地主 玄俊鎬氏談 地稅와 公課金은 數年前부터 내가 負擔합니다 金肥는 奬勵하고 秋收後 元價로 밧슴니다

丹城 大地主 權雲鉉氏談 稅金은 于先 내가 先納하얏다가 追後하야 作人에게 밧슴니다

星州 大地主 李相坤氏談 地稅는 小作人에 물립니다

星州 大地主 都文煥氏談 地稅는 共通으로 小作人에게 물립니다

星州 大地主 李基承氏談 地稅는 小作人이 냅니다

星州 大地主 呂相穀氏談 地稅는 小作人이 냅니다

華川 大地主 金明甫氏談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賦稅外지도 地主가 負擔합니다

竹山 大地主 李範稷氏談 地稅는 내가 負擔합니다

抱川 大地主 李度均氏談 地稅는 내가 負擔하고 肥料代와 雜種稅는 半式負擔합니다

保寧 京城李錫九氏代理 李經九氏談 李錫九氏土地와 地稅는 모다 地主負擔입니다 肥料는 堆肥를 奬勵하니까 問題안됩니다

利原 大地主 姜彰秀氏談 地稅는 地主가負擔하고 肥料代는 小作人이 負擔합니다

靈山 昌寧 大地主 河駿錫氏談 地稅問題보다도 合昔에게 相當한 手當을 주더라도 不景氣 負擔이업도록 하게습니다

醴泉 大地主 金炫鎬氏談 地稅를 地主가 擔負하는것이 當然할것이나 아즉實現이안됩니다

海州 大地主 權藻俊氏談 地稅 雜種稅는 從來로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는 半分式負擔해 왓스나 今年가튼해에는 穀物을 貯立하엿다가 相當한時期에 팔도록하겟습니다

瑞興 大地主 許 迺氏談 地稅는 小作人이 負擔하야 왓는데 小作人이 負擔할수업다면 내가 負擔하겟슴니다

安城 大地主 朴弼秉氏談 元來내가 負擔합니다 다만 金光面 一部만 前부터 作人이負擔하고 金肥料는 元來쓰지 못하게 합니다

槐山 大地主 金奎鎭氏談 地稅는 小作人 負擔이고 打租는 地主負擔입니다

長湍 大地主 吳鍾錫氏談 地稅는 地主負擔하고 金肥代는 半分式負擔합니다

寶城 大地主 林稞瑞氏談 地稅는 至今써지 小作人이 負擔해 왓는데 明年부터는 내가 負擔作定입니다

楊平 大地主 森川博氏談 地稅는 地主負擔이고 肥料는 作定입니다

晋州 大地主 金琪部氏談 地稅는 全部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金은 小作組合에 對하야 低利로 融通해 줍니다 堆肥를 奬勵합니다

郡北 大地主 姜大濂氏談 地稅를 畓에는 내가 負擔하고 田에는 地稅半額을 바되 今年은 特히 正租一石十圓價格으로 밧슴니다

方岷 大地主 許 鼎氏談 地稅는 내가 負擔하고 肥料代는 小作人과 半分式 負擔합니다

鎭南浦 大地主 金錫洞氏談 地稅와 雜種稅는 勿論이오 肥料代도 이미 내가 負擔합니다

鎭南浦 大地主 李鍾燦氏談 各種稅金과 肥料代를 벌서부터 내가 負擔합니다 다만 半打作은 肥料代를 半分만 내록하게습니다

鎭南浦 大地主 姜俊植氏談 地稅와 雜種稅는 이미 負擔하고 肥料代는 半分負擔합니다

平澤 大地主 李成烈氏談 地稅 其他 雜種稅는 元來 내가 負擔하지만 肥料代는 地主와 半分式 負擔합니다

寧邊 大地主 康基源氏談 地稅와 雜種稅는 地主負擔이고 肥料代는 小作人과 分擔합니다

高原 大地主 金容秀氏談 前例에 依하야 小作人에게 負擔시키지오 그러나 今年가튼해에는 가저오면 밧고 안가저오면 못밧게습니다

金化 大地主 文命云氏談 地稅는 不可不 作人이 負擔하고 肥料代는 正租로 收納하야 明春時勢 조흔째에 바드록하게습니다

清州 大地主 閔泳殷氏談 地稅는 五十錢에 對하야 正租五升式을 小作料 徵收時에 밧슴니다

安邊 大地主 金鎭稷氏談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는 바들 내야 바들수가 업습니다

安城 大地主 金昌潛氏談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는 小作人의 志願에 依하야는 免除하여 가합니다

黃州 明治農會主談 稅金種類는 地主負擔이고 肥料代金은 小作人이 負擔합니다

高興 大地主 金顧泰氏談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와 雜種稅는 小作人이 負擔합니다

周城 東拓出張所 藤田氏談 地稅 雜種稅金은 會社의 負擔이고 今年에 配付한 肥料代는 改良 수는업소

協內는 半을 補助하고 그外는 收하는데 不得己 못바갯다하며 明年으로 猶豫하겟슴니다

高敞 高敞校 金相鎬氏談 地稅와 雜種稅를 모다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는 配付치안슴니다

成平 山田農場主談 地稅는 農場에서 負擔하고 肥料代는 小作人과 半式負擔합니다

丹陽 東拓土地管理所 韓東潤氏談 地稅를 地主가負擔하엿스나 그代身에 賭租바들때에 그리고 肥料代와 雜種稅는 小作人이 負擔합니다

禮山 大地主 金鍾榮氏談 地稅는 前부터 地主가 負擔하고 肥料代와 雜種稅金써지 負擔합니다

(完)

貸金猶豫問題

問、作人에게 貸與한金錢이잇스면 一切로 猶豫하십니까

陝川 大地主 李在鉉氏談 되도록은 猶豫해 주겟습니다

陝川 大地主 李廷器氏談 一切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別로 무어준것도 업습니다 다마는 잇는것은 猶豫하겟습니다

陝川 大地主 李炳圭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 金錢이라고 別로 업습니다다마는 잇는것은 猶豫하겟습니다

光州 大地主 李相坤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 돈이 업스니 업슴니다

星州 大地主 都文煥氏談 小作人에게 金錢貸附한일이 업습니다

星州 大地主 李基承氏談 小作人에게 金錢을 무어준일이 업습니다

星州 大地主 呂相穀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일이 업습니다

華川 大地主 金明甫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일이 업습니다

光州 大地主 池應鉉氏談 小作人에게는 別로 貸附한것이 업습니다

光州 大地主 崔相鉉氏談 貸殺關에 가저오는것은 밧사오나 아니냄다고 特別히 督促은 아니합니다

光州 大地主 玄俊鎬氏談 小作人에게 別로 貸借關係가 업습니다

貸與金은 別로 업습니다 萬一 잇다면 今年가튼때 延期하다싶이 하겟습니다

竹山 大地主 李範稷氏談 貸與한것이 업습니다 마는 나는 有附하는사람은 穀價高騰時까지 延期하여지오

抱川 大地主 李度均氏談 小作人에게 金錢을 무어준것은 그들의 힘을펴기爲하야 하는것이 그들의 힘되질데까지 미루는수박게업지오

保寧 大地主 李經九氏談 그들의 形便대로 바들것이고 督促은 하지안슴니다

利原 大地主 姜彰秀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것이 얼마안되니 잇는것은 自然猶豫됩니다

昌寧 大地主 河駿錫氏談 生活에 關係되는만한 小作人에게는 勿論 猶豫합니다

醴泉 大地主 金炫鎬氏談 小作人에 對하야는 特別히 待遇하는意味로 適限이되드라도 各其事情을보아 猶豫합니다

海州 大地主 權藻俊氏談 財次猶豫할 方針이외다

瑞興 大地主 許 迺氏談 一切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可融通하도록 勸告하겟습니다

安城 大地主 朴弼秉氏談 金錢貸與한것이 잇다면 今年가튼해에는 猶豫치아니치못할줄로 압니다

槐山 大地主 金奎鎭氏談 金錢貸借關係가 업스니까 問題업습니다

長湍 大地主 吳鍾錫氏談 貸金이 잇는데는 形便에 依하야 猶豫하겟습니다

寶城 大地主 林稞瑞氏談 貸金業者가 아닌以上 小作人에게 貸與한돈은 업습니다

楊平 大地主 森川博氏談 貸與한金錢은 回收를猶豫하얏습니다

平澤 大地主 李成烈氏談 小作人에게 金錢은 貸與한일이 업습니다

寧邊 大地主 車炳斗氏談 期限되어 支拂치못하는 者에는 猶豫하려합니다

高原 大地主 金容秀氏談 本人은 全部 猶豫하야주엇습니다

金化 大地主 文命云氏談 明春에 穀價가 高貴되면 其時에 正租를 放貸하야 半만밧고 來秋 收穫後 바드려합니다

清州 大地主 金元根氏談 小作人에서 貸與한金錢이 업습니다

安邊 大地主 金鴻模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 돈을 바듬래

晋州 大地主 鄭泰熙氏談 一切로는아니고 그年活程度를 보아 猶豫합니다

晋州 大地主 姜滑秀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돈이 업습니다

鎭南浦 大地主 李鍾燦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돈이 업습니다

鎭南浦 大地主 金錫洞氏談 小作人에게 무어준돈이 別로업습니다 이다면 猶豫하다시피 하겟습니다

鏡城 大地主 許 鼎氏談 猶豫하려합니다

郡北 大地主 姜大濂氏談 小作人이 가저오면 밧고 아니가저오는이에게는 猶豫하겟습니다

晋州 大地主 鄭泰熙氏談 小作組合에서 低利資金을 融通하기에 直接貸借關係가 업습니다

晋州 大地主 金琪部氏談 小作組合에서 低利資金을 融通하기에 直接貸借는 一切업습니다

安邊 大地主 金昌潛氏談 小作人들에게 준돈은 될수잇는대로 延期해주려합니다 或가져오면 밧고 바들수업슴니다

(完)

作料徵收問題

問、今年小作料는 어써케 바드시렵니까

(完)

鏡城 大地主 宋禹淳氏談 地主의 好意에달하야 四割乃至五割이외다

孟山 大地主 李燦元氏談 小作料는 昨年과가티 半分하얏습니다

平康 大地主 李寅龍氏談 小作料는 昨年과가티 半分하얏습니다

谷山 大地主 李河燮氏談 今年은 錢價이라잘지라도 例年과가티 差異업시 하게습니다

榮州 大地主 金恩定氏談 例年과如히 指定賭租로 一反步에 對하야 普通一石式(十九斗)을 밧슴니다

義州 大地主 金炳義氏談 今年 小作料는 例年과如히 折半式打作하려합니다

淮陽 關谷農場主談 例年에 依하야 밧게되어습니다

元山 東拓支店長 渡邊氏談 例年과 別로 다름업시 正租로 밧슴니다

江西 大地主 金鍾杰氏談 小作料는 二種이 有한데 現品과 代金이다 現品을 依數收納하고 小作料契約의 半分을 徵收합니다

陝川 大地主 李晃鎬氏談 半均五割式으로 밧는것이 普通입니다

陝川 大地主 李在鉉氏談 나는 항상 半分되도록 밧는것입니다

陝川 大地主 李廷器氏談 一般的으로 五割標準을 밧슴니다

陝川 大地主 姜在鉉氏談 大概로 小作料는 五割式밧슴니다

光州 大地主 鄭洛教氏談 小作人이 가저오는 비를먼저 風選하여가지고 一石 十斗式을 밧슴니다

光州 大地主 崔相鉉氏談 大概前年에 比較하야 밧슴니다

光州 大地主 池應鉉氏談 半年히 밧는 例가 잇스나 그대로 밧슴니다

光州 大地主 玄俊鎬氏談 今年이라고 別다름이 잇게슴니까 前例에 依하야 밧슴니다

丹城 大地主 權雲鉉氏談 前年과 가티 半分式 指定으로 할니다

星州 大地主 李相坤氏談 小作料는 小作人과 半分式으로 합니다

星州 大地主 都文煥氏談 小作料는 十分之四를徵收합니다

星州 大地主 李基承氏談 小作料는 大概同一하게 밧슴니다

星州 大地主 呂相穀氏談 小作料는 看坪式으로徵收합니다

華川 大地主 金明甫氏談 並作과 賭租 二種으로하는데 大概 賭租는 極少數입니다

竹山 大地主 李範稷氏談 綜會의 指示가잇서 아즉 決定치 못하얏는데 左右間 남의例를보아서 하게습니다

抱川 大地主 李度均氏談 小作人과 半分式으로 하는것이 前例입니다

保寧 大地主 李經九氏談 前例에 依하야 半分式하는것이 地主의規則 (本人은李錫九氏管理人)입니다

利原 大地主 姜彰秀氏談 慣例가 半作이니가 小作料問題

昌寧 大地主 河駿錫氏談 定賭는 例年과가티하고 執租는 五割로합니다

醴泉 大地主 金炫鎬氏談 今年小作料는 四割以內의 程度에서 適當히 바드려합니다

海州 大地主 權藻俊氏談 海州는 언제나 半分打作을 하는故로 別方針이 업습니다

瑞興 大地主 許 迺氏談 大槪는 前例대로 잘듬어옵니다 別異議가잇스면 形便보아서 작정하겟습니다

安城 大地主 朴弼秉氏談 前例에 依하야 半分 或賭租로 하게습니다

槐山 大地主 金奎鎭氏談 小作料는 例年과가티 賭租로합니다

長湍 大地主 吳鍾錫氏談 從來의 慣例上 半分打作으로합니다

寶城 大地主 林稞瑞氏談 例年과가티 밧는데 平均四割假量입니다

楊平 大地主 森川博氏談 例年과何等差異가업시 밧슴니다

晋州 大地主 金琪部氏談 二十年前 定賭로서 例年대로밧슴니다

晋州 大地主 姜滑秀氏談 定賭이기 째문에 例年과가티 밧슴니다

晋州 大地主 鄭泰熙氏談 언제든지 半分制입니다

晋州 大地主 朴在錫氏談 定賭와 半分制가 잇는데 모도 例年대로 밧슴니다

郡北 大地主 姜大濂氏談 今年小作料는五割로 밧슴니다

鏡城 大地主 許 鼎氏談 例年대로 半分式으로 밧고지할니다

鎭南浦 大地主 金錫洞氏談 小作契約 그대로 항상 밧슴니다

鎭南浦 大地主 李鍾燦氏談 小作契約當時 作定한대로 밧슴니다

鎭南浦 大地主 姜俊植氏談 賭租로 作定하얏든것을 小作人 一部의 請求에 應하야 半分打作으로밧고잇슴니다

平澤 大地主 李成烈氏談 例年과如히 打租하야 半分합니다

寧邊 大地主 康基源氏談 大部分 半作인데 或定稅에 限하야는 半作보다 輕하게 밧슴니다

高原 大地主 金容秀氏談 從前대로 收納합니다 災害地에는 그程度에 달하야 減해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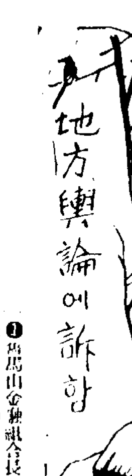
金化 大地主 文命云氏談 今年 小作料는 正租로 半分을 收納합니다

淸州 大地主 閔泳殷氏談 穀價暴落이나 豊作임으로 小作料는 大槪 如前합니다

安邊 大地主 金鎭稷氏談 例年대로 打作으로 半分합니다

安邊 大地主 金昌濟氏談 半分으로하고 落草는 全部小作人이 차지합니다

安邊 大地主 姜根弼氏談 今年에도 例年에 依하야 落草써지 半分으로 합니다



主要都市巡廻座談 (九一)

第十九 馬山篇 —(8)—

出席者 (無順序)

❶馬山金融組合長 王麒煥 ❷馬山委託業組合長 金漢榮 ❸朝鮮支會書記長 金貴東 ❹馬山倉庫株式會社專務取締役 金徹斗 ❺產業金融株式會社長 李基 ❻殖產銀行馬山支店 徐內武 ❼幼稚園園監 李相滿 ❽學校費評議員 金駿榮 ❾靑年同盟委員長 朴渝壽 ❿朝鮮合同運輸株式會社馬山支店 彭東村 ⓫元東貿易株式會社專務取締役 具麟旭 ⓬三省醫院長 金炯權 ▲本社側 李溶淳 呂海 徐命碩

時日 十一月二十六日午後七時半 於漢陽館

記者 馬山에 本來 漁港인만큼 水產業을 좀더 發展시켯스면 어써할가요

金漢 馬山港을 보아서는 漁權의 年產高가 적지안는곳이외다 그러나 夏期에 멀이처 漁獵가는것은 우리의 손으로가고 우리의 하는것이라고는 小數의 전어, 大口, 其他 海蔘, 雜魚等뿐입니다 그만큼 漁港이외다 漁港들이 無市場에 모아 포로 有志들이 着手하야 漁港들을 만큼 되엇스면 좃켓슴니다

金貴 釀造業가튼데도 馬山正宗이라하면 全朝鮮에서 品質조코 맛조키로 有名합니다 그래서 年產高一萬數千石에 達합니다 만은 우리의손으로 直接經營하는 釀造場은 一個所도 업습니다 그의工場數를보면 十三個所나되지만은 어써케 우리의 손으로 經營하게 되엇스면 莫大한 利益이 잇지안흘가요

金融機關 ◇좀더충실하게

記者 이제는 金融機關에 對하야 말삼하여주시오

玉 馬山에 金融機關이라고는 멋개잇습니다만은 제가 現在 金融組合長이란 名義로 잇스니 金組에 對하야 먼저 말하겟습니다 新馬山에 日人多數의 金融組合이 잇고 舊馬山에 朝鮮人多數의 金融組合이 잇는바 그의 量과 質로 보와서는 人口의 比例로 新馬山에 遜色한 差異가 잇고 그의 營業成績도 만흔 優劣이 잇습니다 그것으로보담도 우리의 貯蓄力이 不足함으로 아니라 貸借가튼데도 個人의 高利貸金이 多數함 外敢으로 不少한 損害를 보면서도 金組를 利用하여야 되겟지요

記者 馬山에 現在金融機關으로 不足의 感이 업슬가요

玉 馬山에 現在한 金融機關은 銀行으로 殖銀支店과 釜山商業銀行支店이잇고 金組로는 馬山金融組合 馬山金融組合과 私設貯蓄組合十餘個所가 잇고 其外에 產業金融株式會社 倉庫株式會社 信托會社 無盡株式會社等이 잇스나 어느點으로 보든지 만흘사록조켓지요

記者 馬山에 잇는 各貯蓄組合을 合同시켜 相當한 一金融機關을 만드는것이 어쩔가요?

李基 그것은 좀어려울것 갓슴니다 貯蓄組合은 無產者 多數의 貯蓄을 目的하고 組織된것임에 存續年限이 極短期일뿐아니라 其他事情도 어려울것이 만슴니다

金貴 銀行가튼것은 特殊한 有產階級의 金錢融通에 對한 應用機關에 不過하고 金融組合가튼것도 多少民間의 融通에 對한 補助가 잇스나 組合員外에는 信用貸付等이 업는故로 小資本商業家에는 貯蓄組合이 가장 必要하다고 生覺하는바 그亦是 裏面으로보면 有產者에게 多額貸付를 함 쓰는데 만코 小額貸付 가튼것은 別로히 업스니 여러가지로 보와 貯蓄보담 貸金을 充分히 하야 金融通에 便宜를 주엇스면 조흘듯합니다

記者 殖銀에서 貸付統計가 엇마나 되는가요

徐 現在殖銀에서 十月末統計로 보와 公共貸付가 三百九十四萬餘圓 產業貸付가 百十七萬餘圓 商業貸付가 五百三十餘圓에 不過합니다 馬山에서는 小商業家에 月收이처가의 高利

李基 貸金가튼것이 만흐나 貯蓄組合에서 小額貸付에 活動하야 小商店에게 低利貸金의 便宜를 주엇스면 經濟界의 만흔 助勢가 될것갓습니다

金斗 우리朝鮮사람의 去來가 銀行에는 十分一도 못되고 金融組合에 小數가 잇고 그外에는 全部貯蓄組合에 잇는 個人들에게 應用케되니 一般의 經濟는 말할것도 업고 小商工業者에게 經濟融通에 便宜를 만히 주는 貯蓄組合이 增設되엿스면 金融通에 잇서서 만흔 便利가 잇슬가합니다

具 現在 貯蓄組合으로보와서 여러곳이 잇지마는 資本이 적고 말하서 貸付利息은 高率로 잇슬뿐아니라 內的經營에 드는 적지안흔 弊害가 잇스니 우리에게 缺點이 만슴니다 될수잇는대로 合同하야 大資本을만들고 人件費도 減縮하야 低利의 便宜를 주엇스면 조흘것갓습니다

李基 그도 그럿슴니다마는 아무리하여도 小額貸付로보와서는 그나마 만히잇는것이 오히려 나을가합니다

謹賀新年

◇延 安◇

黃海道延安 穀物肥料一切 朱善日商店 電話四四番

黃海道延安 綢緞布木 穀物肥料 車炳夏 電話四五番

黃海道延安 海陸物產委托販賣 鄭健鍾商店

李 敬 承

延安石船株式會社代理店 (一)延安運送部 電話七番

黃海道延白郡 海州開城 延安白川 直通 延白自働車部 主 金龍濟 電話二四番

黃海道 延白郡廳職員一同

黃海道延安 濟衆醫院 朴承元 電話九五番

黃海道延安 延安醫院 金永珍 電話一六番

黃海道延安 廣德醫院 吳範永 電話五九番

黃海道延安 仁和盛

海州電氣株式會社 延白支店 電話五九番

咸南西湖津 協成商店 李廷應

咸南西湖津 水產業 北靑丸 魯錫禧

咸南西湖 西湖醫院長 藥劑助手 石 護婦 看護婦 西湖壽世醫院

咸南西湖津 海陸物產委托販賣 成西商會 林炳文 金采鎬 李廷鎭

咸南西湖津 三義釀酒所 金錫九

咸南西湖津 海陸物產委托販賣 中央商會 馬承鎬

咸南西湖津 綢緞布木商 姜日善

咸南興南驛前 綢緞布木日用雜貨商 安容

咸南興南驛前 合同運送店 主 安若洙

咸南興南驛前 李松商店

咸南西湖津北靑商會

西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 州◇

廣州警察署 職員一同

廣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州郡慶安面 職員一同

廣州南漢山禁林組合 組合長 石東均

廣州郡 道評議員 朴箕煥

廣州山城釀造場 石鎬

廣州郵便所 所長 安田淸行

廣州郡東部面 職員一同

廣州泉陵醸造場 尹

廣州水利組合 理事 石川政次郎

東亞日報社廣州支局 代表者 金壽鉉

廣州分院金融組合 職員一同

廣州郡都尺面 職員一同

廣州邑內 朝鮮料理 惟一館

廣州郡守 李龍熙

◇西湖津◇

咸州郡 西湖面職員一同

咸南西湖津 海陸物產委托業 三益商會

咸南西湖津 水產株式會社 職員一同

咸南退湖 退湖面長 李建

咸南西湖津 安和丸船主 李鳳善

高興郡邑內下里 合同代書人 植園太助

高興法院出張所 所長 村山信太郎

高興邑內 李東煥

中和郡各官廳 一同

中和郡 看東面事務所 一同

平壤府 五十番地 箕城券番 電話六五九番

ClibPDF - www.fastio.com

文藝

回顧·展望·批判

文壇諸思潮의縱橫觀 (二)

梁柱東

다음은 第三期인데 朝鮮에서 프로文藝가 비로소 八峯, 懷月 諸氏로부터 一九二四年頃에 首唱되엇든것은 우리의記憶에 새로운 事實이나 나亦是 그해『開闢』誌上에는 八號엔가『階級文學에對한是非』를論한 諸家의글이실렷든것으로記憶한다(該記事는 「一文獻一」的으로보아 此時要한것이라생각하다) 나의記憶을 더듬거댄 所謂新傾向派 프로文學을 主唱한이는 金基鎭, 朴英熙兩氏오 多少反對의旗幟를든이는 廉想涉氏 氏는 그後 消極的으로 朴氏와論戰하야 反對의態度를 取하엿다 그 其他 金東仁氏는 階級文學의絶對不成立論을 例의式으로 主張하얏고 李光洙氏는『階級을超越한文學이래야』조흔文學이라고하는等 史的으로 思想的流派를 撮要하기에 簡便한文獻이다) 何如間 一九二四年以後는 階級文學이 盛히 唱道되고 論議되고 또 稚拙하原始的이나마 創作도되어온것이나 그 創作方面을 代表하는 作家는 崔曙海 李箕永氏等이엇다 兩氏의 作品은 모도가 貧困와 殺戮을 主題로하 極히初步의 煽情的小說에 不過하나 歷史的意味로보아 一個新機軸을 만든것만은 事實이다 그들은 아죽 何等새로운 社會觀이나 世界觀을把握함이업시 辨證法 乃至 맑시즘一般에關한 極히初步的인知識도업서서 漠然히 「一無産一」階級의悲慘한 生活相을 描寫하야 千篇一律로 殺人 放火로써 作의結尾를삼엇스며 根本的으로 프로側의 評家諸氏가 無産文學의 形式的理論은 姑捨하고 도로혀 形式否認의 議論에 빠저드러갓든것은 至今으로보더 回顧하건대 實로 噴飯을 마지안할 事實이엇다

所謂 프로文學은 이미 그誕生으로부터 幾多의 辛苦를 經驗하얏스며 幾多의問題와 싸우고 解決하야나왓다 大綱을 들자면 첫재 階級文學成立與否 問題를 비롯하야 所謂『第二期』問題 形式問題 乃至 프로文藝의 樣式問題―이最後者에關하야는 金基鎭氏의『辨證的寫實主義』―文이 만흔 不備點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斷然히 劃時期的文獻을 形成하얏다 그러고 一昨年以來로 對民族文學과의同系가 其體化하야서 마즈막 八峯과 筆者사이에 數個의 論戰을 거듭하야 一部의 「一歸結一」을보게된것은 注意할만한事實이엇다 昨年一年間은 文藝理論으로보아서 左右兩方이 모다 沈潛을 지켜왓기때문에 理論的展開가 殆無하얏다 이沈滯의 社會的原因에關하야는 따로히 說明이는 疑惑을 構成할수잇겟스나 이에는 略하고만다

그런데 以上의 프로文學의 諸問題中에 所謂 樣式問題가 特히 이미 大衆의 解決을 보게되엇고 所謂大衆化의 問題에對하야도 어지간히 歸結을 보인셈이다 나로서는 前者에 對하야는 發行的手法과『辨證的寫實主義』라는 敍語로써 後者에 關하야는『大衆에即하라 그러나 大衆에게 追從치말라』는 一語로써 解決을보앗다고 밋는다

「一民族一」文學對階級文學의論爭은 根本的으로 民族文學派의論을 頑强이 主張하는 一群의 問題가 問題되지안을수업다 以下에는 나는 이에關한 나의特觀을 淡白히 提示코저한다 한가지 現文壇의 展望에잇서 遺却치못할것은 所謂『에로』的一群의 文學이다 近者日本에서는 斷然된 資本主義의 餘澤으로서 所謂『에로』『그로』의 文學이 의 流行을 보게되엇고 그餘波가 朝鮮에도 미치어 우리文壇에도 相當한根據를 잡게되엇다 그러타 이에는 相當한 社會的根據도 잇스려니와 나는 이에對하야 別般의 不滿을 가지지안는者이다 왜냐하면 朝鮮의부르조아―지는 「一帝國一」主義國家의그것과가튼 爛熟의 頹廢를 보이지못하기때문에 深刻한放縱도 업겟기때문이요 멋모르고 一時的으로 그런한文學을 是事하는 中間層의 靑年도 不久에 沒落의現實을 直面하과 相殘하야 寫實의 轉換者가 그 適例라 할것이 아닌것가 써문이다 文壇史를 回顧하여 보오래도 數三年前에서 말함과가티 現階段의 低級한 感傷的 續文學은 어느流派임을 母論하고 에로主義의 實例를보엿스나 急激한 社會情勢의 變動과 아울러 潮流과가티 사라지엇고 잇든다 最近 ○○氏의 에로作品은 稀신 高級部類에 屬한것이엇스나 그本무슨 큰流行을 보이지안혓다 元來 一個의 尖端的에로를 代表할만한 所謂모보·모걸도업고 또그런것을 지을만한 經濟的背景도업는터에 架空的으로 利用不拾에 屬하는 에로文學이 發展할理가업다

現文壇의 主潮는 대개 다음과가티 類別할수잇다

(一)民族主義文學
(二)人道主義文學
(三)社會主義文學
(四)國民·文藝主義文學

民族主義文學은 要컨대 文學의 民族的單位를 主張하고 民族意識과 主義로하야 民族文化와 民族的理想을 高調하야 民族愛, 民族精神을 顯揚코저하는 文學이며 現「一文壇一」에서 그作家를 例示하자면 春園, 요한, 巴人, 般相, 露堂 및 다음 人道主義文學은 오로지 作品一個人의 獨舞臺이다 나는 이人道主義文學의 微溫性에 對하야 보다 根本的으로 春園의 그 文藝觀과 그 創作態度에 對하야 極端의 不滿을가지는者로서 그方面에 關하야는 따로이 紙面을빌것가 에여그는 略하고자나간다

셋재로 社會主義文學 이亦 曙海, 貧永時代의 草創期를지나 步武의進展을보인것은事實이다 懷月, 抱石의 作品은 이미 一個過渡期的 文獻으로 判明되엇스나 나는 最近 宋影 ○○氏의 作品의 그 「一意圖一」만을 貴하다 본다 그러나 文藝는 마당이 社會에對한 科學的觀察과 辨證法的 事象의 把握으로부터 出發하여야 할것이오 漠然한 自然主義式 生活描寫는 漸次 無産階級文學의 圈內로부터 除外되어야 할것이다

朝鮮프로레타리아 藝術運動의昨今 (三)

特히一九三○年을展望하면서

朴英熙

먼저 一九三○年동안의 作品側 所謂 新傾向作品에서 目的의 傾向을본다면 前衛的 生活意識에 이른後에 作品은 勿論의描寫,『스트라이크』과 그意識論 階級的이고 集團的이엇든것의波及, 農村悲境等이다 그中은 事實이다 그러나 一九三○年에는 勿論『로동자, 농민』의 擡頭『캅뿌』의 藝術運動의內容的鬪爭이 大多數이엇다 이點은 淡然히 階級的이고 集團的인데만 滿足할수는업다 그것만가주고는 藝術은 『볼세비키化』

「그」것은 일즉이 諸家가 目的意識論을論할때에도 그러한말을하엿지만, 이제 우리는 그目的意識을 訂正하지안호면 아니된다 一九三一年에 藝術的生産과活動의主要點은―

A 藝術的氣分에서의 製作과 階級的責任製作
B 抽象的 技術的『스트라이크』와 現實的 實際的『스트라이크』의 描寫
C 紛爭투쟁에 잇서서 반드시『캅뿌』의 藝術家는 政治的關心을가지야할일
D 藝術生産의 産業的區分
E 캅뿌藝術家는 事件發生地에 急速히派遣되어 實地調査에 着手할일
F 藝術의技術別 別個團體의 確立。

「筆」者는우에 以上의六個條를 一般的進行에 必要로써 列擧하엿다

A 藝術的氣分에서의 製作과 階級的責任製作。藝術的作品生産은 由來로부터 感興,氣分의刺戟에서만 그 動機를 서엇다 그리고 다른무엇보다도 藝術的生産은 感情的 情緒的原因이 잇섯든外라에―『부르조와藝術에서』―亦是이러한刺戟과興奮업시는不可能하얏다。 그러나 프로藝術이라는 人間의 感情과 情緒를 無視하는것이 아니라 實로 이것을 廣範한 意味에서 利用 活用하는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藝術的衝動에서 作品을 製作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藝術製作의 原因은 客觀的存在에 잇다。即 「階」級的싸움 가운데서 自階級의 勝利로 獲得하기위한 한行動(藝術的 技術的)이것이다。그生生한 事實을 調査하여야할것이다 藝術家가 그事件에 關與된 一人이라면 더욱조흘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不可能할때에는 이細細한것을 곳 藝術的作品으로서『프로레타리아』의 大衆에게 보여야할것이다 一個의作品을 製作하야 방비『프로레타리아』에게 위하치안호면 아니되다 이런한外的에 푸로藝術家는 氣分的藝術에서 行動的責任的藝術製作에 努力할것이다

B 푸로藝術團體內에는 藝術作品가운데에서 그內容의 一般的傾向을본다면 반드시 必要한것은『스트라이크』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비르 作家의 純抽象에 버므르고 生生한 現實的事件이 아니엇다 工場에서 일어난事件이 아니라 作家의 머리속에서 冊床우에서 製造한 「粗」製品이되고 마는수가 이다 우리는 一九三一年度에 잇서서 一般的으로 救出치안호면 아니될問題라고 생각한다 다만『캅뿌』의 內에서는 李箕永氏와 宋影氏의 作品이 이러한 傾向이 稀少할뿐이다 이것을 救出하는데는 藝術家는 階級的事件이 發生할때마다 速히

當選時調 朝鮮의놀애(其二)

魁 車一路

東京市淺草區猿屋町三小林方

◇한배검 할아버지 거룩하신 자취시라,
白頭聖域에 아츰빛이 밝아오니,
이름을 부르시압기 朝鮮이라 햇서라。

◇半萬年 나려오온 빛난史蹟 울얼보니,
사람마다 잘나삽고 功業마다 높사와라
오날에 가는보음이 잠간 쉽을 어떠료

◇젊은아 다 일어나 큰숨 켜고 내달으라
한울늡 깊은물이 억만 해에 흐르거니
어이타 우리앞길이 막힐줄이 잇으리

◇三千里 옛나라에 맑은아츰 다시 샐때
무궁화 꽃다발을 가슴 하나 다북 안고
우리도 즐거운춤을 추어볼가 하노라(끗)

史上의辛未 (二)

李允宰

樂聖 于勒이 伽倻琴을 新羅에 傳한 것이 眞興王 開國元年(西紀 五五一年)辛未이니 一千三百八十年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東洋에서 有名한 樂器로 치기는 伽倻琴이 첫재일 것이다。또 이때 新羅는 名將 居柒夫가 잇서 **高句麗**를 처서 十郡을 빼아섯다。新羅는 이로서 크게

讚德은 新羅眞平王때 椵岑城縣令으로 志節과 勇略이 잇는 사람이다。百濟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痛憤하여 大呼하여 말하되『우리 임금께서 내게 한 城을 맛기신 것을 잘 직키지 못하고 敵에게 敗한바 되엇스니 내가 어찌 죽어서 鬼가 되어 百濟나라 사람을 죄다 죽이고 이 城을 도루 回復하게 하리라』하고 팔을 내둘고 눈을 부릅뜨고 槐木에 머리를 부되처죽엇다。아아, 어떠케 壯快한 일이가。高句麗는 嬰陽王 二十二年, 明年이 有名한 **薩水大戰** 이것이 다

新羅가 오래토록 隣國에 부대끼어지내다가 마지막에는 外交策을 써서 唐과 聯合하여 百濟와 高句麗를 滅하엿드니 唐이 혼자서 그땅을 차지하려드는지라 新羅가 도로 唐을 치서 차차 그 勢力을 驅逐하게되엇다。唐主가 무어라고 하면 거트로 謝過하는척하면서 자우唐과 싸우며 그러구러 半島는 거의다 新羅의 所有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石城과 古山城과 帶方에 唐兵을 大破한 것이 新羅統一 完成後 一年 곳 文武王十一年(西紀六七一年)辛未엿다

統一後의 新羅는 惠恭王때까지 一百二十餘年間은 **全盛時代**엿스나 그以後로는 叛逆과 內亂으로 哭을마치엇나니 元聖王代의 辛未에도 伊飡 悌恭의 叛亂이 잇은 것이다

文獻에보인 羊의故事 (下)

李殷相

其三話 不食官羊

朝鮮의聖君 世宗大王께서는 왼이엇다。大王께서 일즉 溫泉에 게시어 그物은 다외보시나 하나도 動物을내지못하오로 항상 큰不만속에서 날을보내신일이 개엇다 매에 한官吏가 王께 보이고 羊의고기가 그溫疾을 能히면주게하는것이라하고 알외엇다。

「王」은 그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어찌 自奉하기위하여 쩌엇는 物性을 殘害하겟느뇨』하시며 羊이한 本國所産이 아닌것이 아니뇨』하고 대답하시엇스나 果然五十가 되시고 慈悲하심이 群小의魂魄을 크게하신다하겟다。王의玉體를 근심하는 代官等이 다시 알외되 이제 官羊이 遺慍하와 그數가 漸漸만하가오니 請컨대 한번試用하소서 하엿다 그러나 聖君께서는 갓바 許諾하시지안호시잇다는것을 보아 大王의크신마음을 다시한번 늣기어 마지안는다。

其四話 白羊寺現羊

全羅南道 長城白嵒山에 잇는 白羊寺는 本寺名이 淨土寺로 新羅의編時 所建이다。寺의 風景이 絶勝이라고도하거니와 寺僧逍人以外에도 往來로 만흔詩人 高士의足跡이 잇는곳이다。

「鄭」 高麗때 일즉 靜覺國師가되 求請수見白羊伏 把筆沈吟愧不能 滿眼翻楊名始旅 放翁作記價還增 煙光練動春山紫 月影徘徊秋水澄 久向人間空熱惱 拂衣何日共君登 이라한 그러한 淨土寺다。

이제 그러면 白羊寺라는 이름으로 改號 하게된 來歷 에는 한奇聞이 傳하는것이다。

일즉 喚惺堂이라 法號한大禪師가 잇섯스니 그는 本是湖州人이요 俗姓은 鄭氏로서 顯宗五年 甲辰에난이다。十五에出家하야 求法하니 그 曾相이 淸嚴하고 音韻이 嚴肅하으로 大德인종알아 衣鉢로써 뒤를부탁하엿다。

「그」리하며 師는 學道를 란하엿고 內典에 精硏하더니 後에 金山直指寺에가서

「門」 ……

이러한 東方名僧中의 하나인 十六이요 法臘은 五十一이엇다

(辛未新春題目)

一九三○年文壇活動과 文壇意識의清算 (二)

金聲進

創作方面에잇서도 上半期 더구나 新年創作欄은 凋散이엇슴에틀림업것다 新年의 新聞雜誌에發表된創作小說이 數로는 適로 二十數篇이엇스며 더구나그作者의 最作이 우리의새로 發見하는 이름이 엇는것이다 文藝活動의 主體意識이 作品行動에엇고 우리의 文藝運動에 期待가 未來性에 連係運하는限에서 이것은 모든實的評價는 大概이고라도 于先은 반가워할現象이아니면안될것이다 그러나 이現象은 果然얼마나 持續되엇는가 而後의創作欄은 寂寞 東仁 獨鵑等의 二三旣成人의 精力的努力(그內容評價는 이곳에서는 論外로한다)을 一方에 볼수잇슬뿐으로 零落―그것으로서 一

貴해든것이다 一九二九年 또는 그前에잇서 우리의期待를 걸은 몃사람의詩人도 一九三○年에와서는 大槪로 沈默하거나 一二篇의 身邊的劣作을發表하는데 그치엇슬뿐이다 이바거戲曲의發表는 거의―四篇에서 더 發見할수업섯스며 詩壇에 잇서도 混亂에 放任―그것뿐으로 主要한詩律問題 詩型問題等에 對하여는 少許의關心도업섯다고記憶한다 나는이以上 이沈滯한 問題를 더凝縮하고십지안커니와 이좀 陳述한事實은 果然驚異할 事實인가―또그것은 一九三○年에만의 例外的事實인가 아니다 그것은 沈滯한 朝鮮 朝鮮의 陰影의必然的反射일것이다

文壇의沈滯―이陰險을 되무리 識하며 우리文學者는 過去엿마나 하엿든가 그럼에도不拘하고 그들이 그때마다 夢想하든 所謂 文壇의『黃金時代』는 結局오지안헛다 나는 斷言할수잇다 오는해에의 認識에서 出發하야 우리의文學 理想主義者가 아모리 所謂文壇의黃金期를 豫想한댓자 그것은 結局은 夢想以上의 아모것도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여겨서 우리의 말하는바 文壇의 그것의意味에 對하야 現實的角度에서 一吟味를試하고사 픈것이다

말할것도업시 우리가認知하는 所謂概念의로의 오늘의所謂 文壇은 現代的의 날이 증과의 諸技術關係에서 비로소 存立할수잇는것이며 따하서 그諸要도 그것의로의 嚴格한規定을 不可避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 朝鮮의 現實的條件은 이現狀的지날이를의 發展에 얼마나한 素地를 주고잇는가 여기에 對한 對答은 明瞭할것이다 이點에서도 우리가 다달이 數十篇의作品의生産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無謀以上의 意識한 不安일것이다 이와서 우리는 所謂 文壇의 環境과의 相互的條件을 現實의 구석구석에서 수두룩하게 發見하지안는가 오늘의 우리로서 所謂文壇의『沈滯』를 慨嘆하고 捨上來의文壇의 盛況을 豫期함은 完全한 幻想이다 이것은 果然나의 慾求의 過渡한 만인가

當選時調

朝鮮의놀애其二
新春懸賞當選發表其一

魁 車一路 東京淺草區猿屋町三小林方

副 螢마 住所未詳

三 朴魯洪 清州邑本町一의三二四

佳作

金善亮 安岳邑內訓練里三三八
金麗生 大邱府南山町六七方張方
池泰善 平壤新陽里
常明 北平東城遂教胡同十號
鄭英 大邱府新町
鄭益鎭 文川郡明泉面石田里
楊相殷 全北淳昌郡金果面古磯里

◎住所未詳한이는곳通知하시요◎

新刊紹介

▲新女性新年號 朝鮮의新女性에게 告함, 금반지안가진女子, 女人論壇, 女流諸氏執筆, 工夫한女子와안한女子는무엇이다른가 諸氏執筆, 社會百面相 諸氏執筆, 各女學校才媛巡訪記, 外其他 京城府慶雲洞八八番地開闢社發行 振替京城八一○六番 定價二十五錢

▲朝鮮地方行政新年號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十四番地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發行 振替京城二三○二番 定價五十錢

▲次の極東戰爭 著者西野雄治 東京市丸ノ內昭和ビル一階朝風社發行 振替東京六七三八二番 定價一圓

謹賀新年

◇浦項◇

迎日郡廳 各產業團體 職員一同

浦項警察署 署員一同

浦項公立普通學校

迎日麵子製造株式會社

浦項面長 下村重英

浦項金曜會

◇熙川◇

熙川金剛醫院 公醫 崔佺錫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金○松

熙川金融組合長 崔璟俊

熙川郡廳 李宗鎬

熙川郵便局 李雲泳

熙川金融組合 姜用默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古川直行

熙川金融組合

熙川郡廳財務主任 添島美義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申允洙

熙川公立普通學校長 山下末吉

熙川金融組合 福島廣治

熙川金融組合 金麟俊

熙川郡廳 趙昌植

富士生命保險株式會社 地方部長 井上清

熙川邑內 茅野鹿一

熙川郡廳 梁柱鉉

熙川郡廳 西尾榮太郎

熙川公立尋常小學校長 吉田久吉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徐鶴哲

熙川郡廳 東善次

熙川郡守 桂淳

熙川郵便局長 三浦四方藏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明石伊勝乃

熙川郡廳 李俊杰

熙川面職員一同

熙川郡廳 徐延熙

熙川郡廳 金商圭

熙川郡廳 李信榮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宮脇千代子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金履慶

熙川面協議員 朴澄根

熙川庶務主任 朱永麟

熙川郡廳 黃元燮

熙川郡廳 孫武贊

熙川郡廳 金殷奎

熙川森林保護區 金淳亨

熙安英油組合 金承墉 李炳浩

熙川金融組合理事 橘利九

熙川郡廳 小笹治三郎

熙川邑內 洪京玉

熙川公立普通學校訓導 羅柱憲

熙川郡廳 秋山正二

熙川郵便局 朴乃永

熙川郡廳 金景星

熙川金融組合 金潤洙

熙川金融組合 梁建浩

熙川警察署

熙川邑內 中本運之助

熙川郡廳 柳昌麟

熙川琴仙樓 妓生 禹小君

寧川郡守 文炳瑞

熙川邑內 有隣醫院 院長 崔龍喆

熙川郡廳職員一同

平安自動車商會 主 金奎鶴
本店 平安北道熙川
支店 平安北道江界
同 平安南道价川
同 平安南道安州
同 平安南道新安州

身病으로하야 轉地療中年賀의禮를缺함

金奎鶴

ClibPDF - www.fastio.com

가정

시에 한집안에 여도는 청춘의 주름은 만히버서저 버릴것 생각합니다 더말할것업시 그들은 한집안에서라도 어른아이의 상하가 업시그러고 구별이업시 지내가는사이에 평화와 안락은 차저드는줄로암고잇는것입니다

외국가정의생활방식과 조선에적합한본보기 (三)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어 새해부터 새생활에!

露國

가정이쥬락뒨 불평은대긔

주인、주부가다벌어서 露國부스네솔氏談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생활은 다른 나라에 비하야 밧식이 퍽신 다릅니다 우선외국주 세가지중 가장 중요한 먹고 입는것 두가지가 한집의 주부의 손을 빌리지안코도 되는것입니다 공동 주방、공동 세탁 소가이서서 각집이 빨래을 해두면 먹을때(아츰은 여덟시 전심은한시 저녁은 여덟시) 날려다주며 입을때 맨드려다 주는곳이 잇습니다 물론 손이와도 특별히 분수치안흡니다 밤낫 먹고 닙는준비에

헤여나지는 못하고지내

는조선부녀들은이런이야기를 듯기만해도 가슴이 흡연할것이아니겟습니가 아모튼 한가정의주부와 주인이 똑가티 자유롭고 시간여유가 잇서서 자연히정례가되고 집에잇는 살림을하게됩니다 또 녀자도 남자와가티 공장 회사가튼데 나가서 돈버리를 하게됩니다 딸하서 한가정에서는 차별이면 도모지업습니다 그럼으로 불쾌한때가 적고 즐고로게 상패하고 씩씩 합니다 며욕이 아츰이면 아버지와어머니는 공장으로 아이들은 화교나 위탁(委托)아동소(한곳에 一二三만명씩은 수용할수이스며 만반설비가되여잇습니다)로 [illegible] 다 공장에다니면서

시문괴자로 지내는녀자

만 二十一만명이나 됩니다 이와가티 남녀가 사회라는 또가튼 무대에서 한동을하지만 모든 방식이 편의하게되엇음으로 집에서 어렵이나 할면을 무리는나라

한가정의가 계는남녀가

한동안 합원을 임용니다 불은 변한날이면극장에도가고 오 가족의 동서회(讀書會)도 이슴니다 그런데이와가튼 [illegible] 협동하야 월급을 타다가 집의 소용이되는것을 의론해서 돈때에 느허두고 서로 쓰네습니다 또 지위부인이 아니고집에서 살림만하는 부인이 더구 이 월급(여기서는 보름 만큼씩 봅니다)을타다가 봉투人재부인에게 넘깁니다 그러고용돈을 쓰게됩에는 부인에게 번번히타 씁니다 또 나분괴외는 남편으 [illegible] 이 남각되기만하면 행정재판 [illegible] 가테와서 가치가게황연에

범은 거반업다고해도 파언이아닙니다 커다께진에 도라오는길에 의탁소에서 아들을 버려고 옵니다 또저녁식사후 재미란잡핑장합니다 층업서로 그려워다가 모여서는 하둔지밥 이야기에 다가려취하면서어린들을 시 「라ㄴ음은 「바와라이카」를 흘라고 아이들은 손풍금을 타며

무사람의용 돈예산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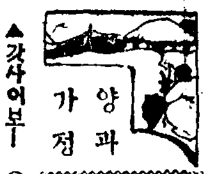
월급보다 초과될때에는 녀자에게 예산액 그대로 빼여주고남자에게는 모자라는 남은돈을줍니다 이것은 남자가편히 신용을일흔닷이입니다 그런고 또한가지는 한부부가 리혼을 하게되면 남자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십년간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이 되어잇습니다 아마 조선가정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살어가게 되다면 얼마쯤은 불평과 불안의 흠기가 청산되는둣다

부스네솔씨내외분

가정부업

장갑에매는것

이것은 시내 평림문안 장신동 왕십리쪽에서 흔히하는것으로 장갑짜는 공장에서 바더오는것입니다 장갑한다-스(열두켜레스롬네쪽)를 묵음 씨어단고손 부려를 친부 암용러는데 공전이 평균 五전씩입니다 十四세된 아이들로 칠숨씨이면 하로에 하다-스반씀박게 못하지만 이숙한어른이면 집안살림을 해가면서도 밤낫도록 종안 짓스면 세네다-스는 넬수잇습니다 그럼오돈 한차례(보름 만큼씩으로)에 한 원씩은 차지다 쉽수잇습니다 그런데사철 만치안흔것이 할엇니다 몹시며 을배는 업고 아순이잇는 덕일나다 물론 겨울에제일 만습니다 그럼으로 겨울한철만 할하것으로 예산할수밧게 업습니다



양과 가정

사람에게 온몸을다바처 (나)

가정과 인연 기퍼가는양

▲갓사어보ー (羊衆包)

양의고기 석량중、표고 몃조각、숙주 한량중、생강 한조각 참기름、밀가루 석량중에 소금、장물이 재료가됩니다 양의고기와 그외 다른 재료들을 잘게 채를썰어서 소금으로 간을하야 우선 참기름에 볶가 노코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야 얇팍하고 조희와가티 얇만하게 밀어서 둑이 두께 길이가 세치씀되게 갈러서 이속에 먼저 볶가 노흔두것을 너허서 겸어 버립니다 이것을 끌흔 참기름에 지져 냄니다 지저낼 그모양 대로 접시에 담어내는것도 조흐나 잘드는 칼로 곱게 몃토막에 갈라노흐면 먹기에도 보기에도 조흡니다 뒤은에 고기는 장을처서 간을 드려여 노혼것을 니처서는 안됩니다 또 혹 올너허 감은후에 가다구년를 물에 푼것을 바려야 벗겨지지안코 잘익습니다

▲스기야기 (고기복가)

이것은 중국식의것이라는것보다 일본식에 갓갑습니다

양의 고기 열냥중 파대여섯뿌 미나리(芹) 한단 참기름 조으만치 장반 종지 소금 반술가락 미림(味淋)바 에 양의고기는 두푼식되는보 죽지의 재료로 합니다 처음 피롱쥭겁게 썰어 미리준비 금처서둡니다 이즈음에 주이한것은 고기를 살결(纖維)고 직각(直角)이되도록 가루지로 썰어버지 안흐면길기고만 아니됩니다 미나리와 파를채치쓸되는 길이로 엇속빗슥하게 자릅니다 다음에남비에한 기름을 조금넣어 드린이 봄에 노하 또거워 올을뻬에 양의 고기와 미나리 파가든것을너허 금하게 익습니다 그런고 익은뒤에 저린 소금 장으로 간을 마추고 맛을맨드러 에거 내려노흡니다 화로불은 될수잇는 한청아지 단시간에 익히는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어린이 조선

大畵聖率居 (二)

李殷相述

신라(新羅)김서현(金舒玄)의 아들로 김유신(金庾信)이라는 아가나니 때는 진평왕(眞平王) 십이년(西紀五九六)이엇다. 나이겨우 열다섯에 화랑(花郞)이되니 그때사람들이 수마히 그압에와 랑도(郞徒)가되어 나아마 그때줌에 된일이엇스더라。 유신이 이불도 뛰어나게잘나고 성질도 남달리 쾌활하여 하종안 몸을도모두과함께 술과사 집으로 거짐의방으로 드나든일이 잇섯든것이다。 유신의어머니 만명부인(萬明夫人)은 유신을 배워저부터 금옷입은동자가 구름을타고 방으로들어오는 희한한꿈을 꾼일로 또한 나흘적에도 이상하게 스무달만에 나핫다하야 유신을뼈다르게생각하고 별다르게 바라는첫이만큼 유신의 방탕한 번질발한번 놉이게생각하든것이다。 그럼으로 유신이 술집과 게집의 방에 드나드는것을 알게된 어머니는 슬음결정이 려 미어써는것가티 쓰라리고 생음도막도 막 썩거내는둣이 아팟다 그러하여 어느날 중요한동을 타서 만명부인은 유신을 불렀다。

「애 유신아! 이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는사람은 나이다 내목숨을죽여서라도 너 갈되기를 원하는 나이다。」

하는 어머니의눈에서는 헛마디부터 벌서눈물이 고이어진다 이것을본 유신은 무어이지는일길이업스나 그저 죄송하고도감갑하여

「어머니 웨 그러서요。비? 말슴하서요」

하고 어머니의손목을 잡앗다

「오냐 유신아 네뜻을 말할터이니 너는 자세히 들어라」

하고 어머니는 이마에 내려지는 흰머리카락을 거더올리며 말한다。

「유신아 보아라 나는 이미늙어서 이가티 머리는셰여젓다 그러나 낫이나 밤이나 너하나의 공명을위하여 하날께츅원하는마음은 변하지안는다 어미는 너잘되고 큰인물 잇워지기를 이담지도 바라는데 너는 어써하여 작안에 못된 아이들과 어울를 경우고 못갈곳으로 드나든단 말이냐 그것이 내가 걱정이 아니거든 어쩌하야 네몸을 네스스로망치버리고자 하느냐 사랑이한 위해 그몸을 바치고 그리하번 세상에 나매 나라와 의롭아 그이름을 천추에 날림이 맛당하거늘 너는 어쩌그리해지를 못하느뇨。」

하고 소리내어울며 그침줄을 모른다 유신은 어머니와 우는것을보고 또 그간무한 훈게를 녹고 가슴에 뉘우치는 피가끌허다

「어머니 상신하지 마서요 하늘보영서하옵고다시는한번도 그러한일이 업겟사오니 안심해주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엿다 그런지 몃날뒤 어느날─어느곳에 유쾌히 노는일이 잇서갓다가 술이취해 돌아오는 길에 유신의 타고 오는 말이 천날에 다니든 집이라고 길이 익은까닭이든지 집계레잇는 창녀의집으로 갈못트러갓다

유신이 말을타고 들어오는것 보 창녀는 뜰밖로 뛰어나려서며 반기는듯 원망하는듯

「어이그리 무심도 하시오 그리케도 소식업시 오시지안트란말입니가 어서 올나가서요」

하고 울면서 유신의소매를붓삽는다。 그제야유신이 문득정신을차렷다

「무어? 이 계어데야?이런는 에말?」

하고 꼿말끼에서나려 허리에 찬몬칼을 빼어서는 자-탓든말의목을위죽이고 말안장이고 무에고 다그마당에 뿌리친채 갓녀에게는 한마듸말도업이 급히 그문을나서 돌아간다。

이것을본창녀는 드밖에도 무서운변을 맛난지라 원망하는노래를 지어보앗으니 그창녀의이름은 천관(天官)이엇다。 그리하여 뒷날 그집자리에서 절을일우니 그절이름을 또한천관사(天官寺)라하엿다。(續鄕集卷中)

當選童謠發表

一等 失名氏

동리사람

똥리 사람 도토리알
다 주어오니
다람쥐 양식업서
굶고 웁니다
×
동리사람 나무닙을
다 긁어 오니
산토끼 잘곳업어
추워 떱니다
×
다람쥐 산토끼는
생각도 안코
동리사람 어찌그리
무심할까요

二等 李丙祥

산우에兄弟

산우에 나무兄弟
옷떨어 지고
산우에 토끼兄弟
달아납니다
산우에 개가兄弟
쫏아가는데
산우에 우리兄弟
구경합니다

三等 毛鈴

눈꽃새

하얀눈!하얀눈!
어째서 하양노?
마음성 맑으니!
하양지!
◇─◇
빨안꽃! 빨안꽃!
어째서 빨앙노?
마음성 예쁘니!
빨앙지
◇─◇
파랑새! 파랑새!
어째서 파랑노?
파란콩 먹어서
파랑지

選外佳作

단풍

설연이

우리애기 손가튼
단풍닙은요
추워서 얼어서
빨앗답니다
가엽서라 짝업산
다섯손가락
버입에 갓다대고
녹여줍니다

當選童謠

(少年少女新春文藝發表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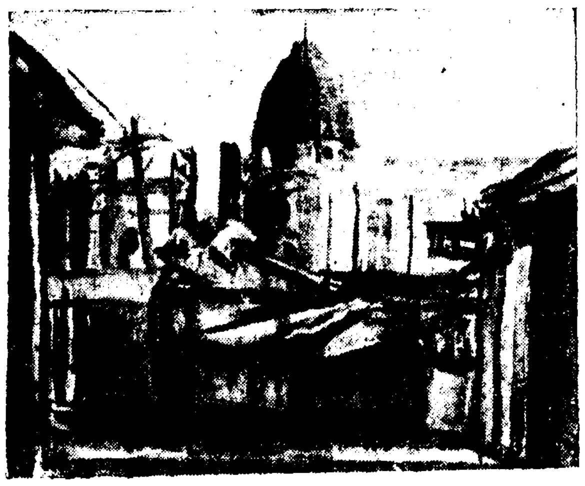
一等 동리사람 住所不詳 失名氏

二等 산우에兄弟 高敞高興 李丙祥

三等 눈、꽃、새 咸興 毛鈴

佳作
- 단풍 鐵原 盧良根
- 칠판의노래 平壤 尹泰泳
- 눈온아침 京城 金桑木
- 담뱃대 鎭南浦 趙默
- 연필과공책 [illegible] 李[illegible]星

◇住所氏名이업는이는곳通知하시요



二等當選畵 (第一回發行) 鄭鎭洪

양에관한서양동화

어린양과 자은물고기 (二)

그림 [illegible]

여러 아이들이 이런작난을하며 어써케 가산쓰리게 슬펏는지몰 흥겹게 밝논고잇는것을 계면누을 또다먹기는 고사하고 풀을 차으로 구경하고잇다가 편건되리지도 아니하엿습니다 몰위며 심을 버잇습니다 그런 이때케 오랫동안 남어 지나대 게모는 요술(妖術)을 부릴 가고 만잇습니다 그런데 언제출 아는데업으로 이틀날매에게 인가 이집에는 어데서 손님등 요술을부리서 올바른 물고기를이 와잇습니다 마유이 아칸게모 만들고 어린우이는 어린우을만는 「이건 참좋은 괴회가와다」 도려 버렷습니다 조고만 몸고 고 생각하고 옥식 만드는 사람기는 여릇식으로 혜염을치기는 을 불러다가 하나 솜피서 어업지들 몰어습 「너 커다란바테가서 양의 색기 니다 이런후은 풀비로로 어날 올 데려다가 죽여다구 손님장어울림 져여다니기는 하나 들에게 무어만드러 드릴만한 것이 그것밧게는 업고나」 는 유식만드는이가 어린羊을 이러케 말해습니다」 더리고가는것을 보고 자기는 옥식 만드는 사람은 곳 어린 연못속을 헤염처서 집까지 좃 양을데려다가 부엌으로 끌고가 어 오든것이엇습니다 그러케되종 서 네발을 꽁꽁 얽거 매엿습니다 짐작하고 어린羊은 아래를나리다 보고

아모리한 짓을 하든지 어린양은 억지로 참고 잠자코만 잇섯습니다 마츰 유식 만드는사람이 어린羊을 찔려죽일양으로 식칼을 갈고 잇슬에엿습니다 어린羊이 얼뜬 보니까 조고만 물고기가 한마리가 시금창속에서 요리조리 헤염을 치면서 어린羊을 쳐어다보고 잇섯습니다

「깁흔 연못속에 어린옵바! 정말이지 슬퍼서 못견되겟소 커사람이 식칼(食刀)를 갈그잇다오 커사랑은 내가살을 찔르레라오」

이러케 큰 목소리를 질럿습니다

그러나간 물고기는 깁흔 곳에 누나야 정말이지 슬퍼서못견데겟다 나는 이러깁흔물속에잇고!」

이 조고만 물고기는 물론 그 어린 옵바엿습니다 이 물고기는 이러케 대답하얏습니다

謹賀新年

◇居昌◇

居昌郡加祚面道里 製酒組合

居昌郡北上面葛溪里 林有樑

居昌郡熊陽面東湖里 李太永

居昌郡居昌面正莊里 李起善

居昌郡渭川面黃川里 李時薰

居昌郡渭川面黃川里 鄭海均

居昌郡渭川面 面長 鄭鎬均 外職員一同

居昌郡渭川面場基里 朴戍文

居昌郡渭川面場基里 面協議員 波多野愼一

居昌郡加北面 面長 金秉湜 外職員一同

居昌郡 加祚金融組合

居昌郡加祚面 場基製酒組合

居昌郡加祚面場基里 武永間吾

居昌郡加祚駐在所 千田二郎

居昌郡加祚駐在所 裵点植

居昌郡加祚面一谷里 金采煥

居昌郡北上面 面長 林盛熙 外職員一同

居昌郡北上面葛溪里 林碩鐘

居昌商號 永昌商會

居昌金融組合 組合長 李愚亨

居昌郡居昌面上洞 面協議員 林鍾鶴

居昌郡邑內 中村濱市

居昌郵便所 所長 長部義忠

居昌郡渭川面黃川里 鄭來均

居昌郡 渭川製酒組合

居昌郡渭川面黃山里 愼宗三

居昌郡加祚面 面長 鄭漢哲 外職員一同

居昌郡熊陽面老玄里 熊陽製酒組合

居昌郡熊陽面山浦里 李鉉彬

居昌郡熊陽面山浦里 李鉉璐

居昌製酒株式會社 支配人 金相吉

居昌敎育會

居昌郡邑內 崔水山

居昌郡邑內 司法代書人 姜浩克

居昌郡邑內 司法代書人 章東觀

居昌郡邑內 米國シンガ裁縫會社分店 主任 文長表

居昌郡邑內 綢緞布木商 金景五

居昌郡邑內 鳳山鑛主 金成昌

居昌製酒株式會社 社長 李鉉輔 專務取締役 愼昌縡

居昌郡居昌面下洞 道評議員 愼鏞禧

居昌郡邑內 河山醫院 醫師 河周鉉

居昌郡廳

東萊銀行居昌支店 支店長 文復煥

居昌春秋會

居昌郡邑內 回生醫院 院長 金洙千

居昌郡熊陽面竹林里 學務委員 愼判鳳

居昌郡熊陽面 面長 李埈鈺 外職員一同

ClibPDF - www.fastio.com

潑剌한 平壤의 新生面

庚午年은 平壤에 勇氣와 自信, 飛躍과 擴張의 힘을주고 그속에서 偉大한 足跡을 남기고 간다 商工의 都平壤은 四海가 戰慄하는 不況의 暴風에 흔들리지 안코 勇敢히 難中의 難關을 突破하려하며 勞働에서 奉納으로—나날이 기울어가는것이 우리의 經濟狀態인데 平壤의 敎育界는 庚午를 期하야 七十餘萬圓에 近한 巨財가 新界에 集中되어 劃時期的 新築과 擴充을 完成하엿스며 朝鮮勞働運動史上에 남기는 偉大한 爭議의 하나라는 平壤의 고무爭議가 그 하나를 남어버린 庚午이다.

平壤은 살아잇다. 生動하는 社會다. 그리고 飛躍的이다 ……朝鮮이 更生하는날 가장먼저 更生의 歡聲을 지를라고 準備를 하는다. 生動하는 平壤, 飛躍的 進步를 示한 庚午의 平壤은 更生할 朝鮮에 어떤 歷史的 肥料를 주엇나? 一年 又一年, 그해가 그해연만, 이제 구태여 庚午의 平壤을 다시 回顧吟味하려는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가장 通俗的으로, 過去 一年, 우리가 다시곰 돌아볼만한 자최와 그 機關만을 들어서 산 平壤의 一面을 보려고 한다 (一記者)

民間敎育界의 飛躍 六個校가 校舍新築

—녀자고보와 도립사범은 총독부방침 사립으로 六개교 신축이 가장 이채—

崇仁의 組織變更이 異體

庚午年은 平壤에 잇서서 어느 方面보다도 敎育界에 가장 큰 깃븜과 滿足을 주고 간다. 各中等學校가 庚午를 期하야 爭先新築에 着手竣工하엿다. 實로 庚午의 平壤敎育界는 大運을 만낫다고 할것이다. 그中 公立女子高普는 火災의 不幸을 當해가 때문에 莫不得已 校舍를 新築하게된 者요 道立師範은 總督府의 方針下에 모든 計劃과 豫算이 서워진 돈바이매 以上 官立兩校의 新築은 그 面에 하지 안켓지만은 民間機關으로서 崇實專門을 筆頭로 光成高普, 正義女高, 崇義女校, 盲啞學校, 鳳鳴學院等의 新築은 오족 舊殼을 脫한 一大飛躍的 革新이오 擴充인 點에서 官立兩校에 新築費 二十餘萬圓에 比하야 私立各校의 三十餘萬圓이 더욱 貴하고 큰것이라 아니할수 업다. 또 崇仁學校가 그 組織體를 變更하야 商工都市로서의 平壤에 잇서서 初有의 商業學校가 出現케된것은 決코 以上 各校의 新築擴張에 뒤지지 안는 慶事라 할것이다. 이제 各校를 通하야 그 建築等 諸般 設備의 內容을 잠간 보고 지나가자.

平壤敎育界의 完全한 設備

◇교육정도로 제일 자랑

最高學部인 崇實專門

崇專은 一九二八年七月에 起工한 大講堂이 三月頃에 落成되고 다시 四月에 起工한 寄宿舍가 十月에 落成되엇다 大講堂은 室內運動室을 兼한者로서 그 建坪이 三百三坪, 延坪이 七百五十六坪, 그構造는 二층, 鍊瓦製로서 六千名을 收容할수잇스며 一般集會로는 音樂會, 講演會, 活動寫眞等과 室內運動會等을 開催할수잇다 그工事費가 六萬圓 三年에 亘하야 겨우 竣工되니만큼 會集場所로서는 第一 큰집이라 할것이요 小規模의 音樂會等은 차라리 너무 場所가되어서 不適當할것이다 同下府에는 四百餘名을 收容할 大食堂과 五十名式收容할 沐浴湯이 二個나 設備되어 平壤敎育界의 完全한 設備로서는 嚆矢를 作하엿다 同寄宿舍는 四月에 起工한者로 그 構造는 四階鍊瓦製, 建坪七十二坪, 延坪二百八十八坪, 工事費 三萬圓으로서 五十八室에 一百名을 收容하게되엇고 食堂, 沐浴室, 救護室等이 設備되어 平壤唯一의 最高學府로서 그面目을 더욱 更新하엿다 이제와서는 차라리 大講堂과 寄宿舍에 比하야 學校本館이 초라한感을 자아낸다

唯一의 商業校로 民間經營이 貴重

—학년부터는 갑종자격

甲種資格인 崇仁商校

崇仁商業學校는 過去 崇仁學校의 後身으로서 崇仁校當時의 經營困難은 그存廢問題가 累累히 입에 오르게되엇더니 偶然이라 할는지 四月에 甲種商業校의 認可를 엇게되어 現在 一學年은 甲種商業校生으로서 入學된 者이다 이에 經營機關인 長老敎側으로서도 活氣를 어더 새로히 財團法人을 完成하야 確固한 基礎를 세우고자 設立者 吳國善氏 以下 十二人의 委員이 方今 不眠不休의 活動으로서 十五萬圓 財團法人 完成을 目標로 進行中 現在 財産十一萬餘圓을 除한 八萬圓 寄附金募集에 着手하야 不過二三個月內에 이미 萬五千圓에 達한다 同校야말로 平壤에 잇서서 唯一한 商業學校로 이것이 民間의손에서 經營된다는것은 實로 貴하다 할것이다 아프로 同校의 基礎完成을 向하야 全平壤府民은 모름지기 잇는誠意를 다하기 바란다

三月一日建築 幾多建物을 凌駕

음악, 도서, 오락, 체조장등

平壤의자랑인 正義女高

同校는 米國宣敎人으로부터 寄附된 十五萬圓을 投하야 三月一日 南山峴언덕우에 新校舍를 起工하야가지고 十月五日에 竣工되니 工事費十四萬餘圓 光成高普校長 金得洙氏의 設計한바로 建坪이 三百四十二坪 四層鍊瓦製作으로서 그 美觀은 平壤幾多의 建物을 凌駕하는바이며 敎室數가 八, 外로 音樂室, 圖書室, 娛樂室, 體操場等 完全具備는 平壤에잇서서는 敎育界의 最大建物인것은 勿論이요 全朝鮮을通하야 女子敎育機關으로서는 가장큰 建物일것이요 男子敎育機關으로서도 어데나 내세워 지지 안흘집이다 實로 同校가 南山峴 언덕우에 聳立하야 全平壤을 굽어보는 偉觀은 平壤의 新市街를 威壓하는 氣

室內體操場

동교는이로써자랑

光成高嚆矢

光成高普는 大講堂과 體操室을 新築하엿다 工事費四萬餘圓으로서 中等學校로서 이만한大講堂과 室內體操室은 平壤에잇서서 同校가 嚆矢다 이것도 同校長金得洙氏가 設計한者로 建坪 三百坪, 二千餘名을 收容할수잇다하며 同校는 이로써 더욱 그 宏大한 外觀을 자랑하게되엇다

煉瓦製二層

대식당과 세탁장

崇義女學校

崇義女校의 寄宿舍는 五月에 起工하야 十二月四日에 竣工하엿는데 建坪이 百五十坪, 工事費 一萬七千圓으로서 五十餘名을 收容할수잇고 構造는 煉瓦製二層으로서 下層에는 二百餘名을 收容할 大食堂과 洗濯場, 炊火場이 設備되엇고 二層에는 親睦會室外의 設備되고 房마다 所와 洗面所裝置가 具備하엿다

一切가 西洋式

구조는조선식으로

◇盲啞學校

盲啞는 現正義女高 新築校舍의 垈地에 잇는것으로 正義女高가 新築하면서 同校는 大新里로 移轉新築하엿는데 四月二十日에 起工하야가지고 八月末日에 竣工하엿다. 構造는 朝鮮式으로 建坪이 三十二坪 工事費五千圓, 現在收容人員이 二十餘人이다. 內容의 沐浴室, 洗面所, 便所等 一切는 西洋式으로되엇고 現在四學級을 收容하고잇다.

設備가 完成

아즉은강습소규정

◇鳳鳴學院

鳳鳴學院은 平壤에잇서서 唯一한 佛敎의 經營機關이다 距今 十年前에 創立되어 倉田里 極樂寺布敎所의 法堂으로 借用하여오다가 現校舍新築場의 垈地 二百八十坪을 四千五百圓에 買受하야가지고 六月十五日 新築起工하야 辛未三月에 竣工豫定으로 方今工事中이다 工事費는 七千圓, 構造는 二層煉瓦製로서 아즉은 講習所規定에 依한者이나 新築校舍가 完成되면 學校認可를 得하야 六年制를 實施코자 方今學務當局에 手續中이라한다

道立의 後身

공사비 十七만원

官立師範校

道立師範을 廢止하면서 생겨난 官立師範의 新校舍로 船橋里에 建築하엿다 五月에 起工하야 十一月에 竣工한者로 工事費十七萬圓, 校舍가 五百二十七坪, 寄宿舍가 四百三十一坪으로서 寄宿舍는 一學級을 收容하게되엇고 實習地가 三千八百坪이다. 그構造는 本館二層으로서 體操室, 理科室等도 設備되어잇스며 그敷地가 二萬二百四十餘坪이다.

火災로 新築

방금신축중이다

平壤女高普

一月十日 平壤女高는 火災의 不幸을 當하야 全校를 燒失하고 그동안 上需里校와 舊校舍를 借用하면서 新校舍의 落成을 苦待하는바이다 新校舍는 六月에 起工하야 方今建築中으로 延坪 九百五十坪, 工事費 十二萬圓으로서 構造는 二層, 八學級이며 音樂室과 體操室等의 設備外에 豫算되어잇스며 竣工은 一九三一年 五月頃일듯하다

고무職工爭議 勞働運動의 一面

◇로동계 공전의 대쟁의

庚午平壤의 一大事件

勞働運動! 긴말을쓰기前에 고무爭議를 聯想한다. 果然 庚午平壤의 勞働運動史上에 잇서서 空前의 大鬪爭이라 할것이다 그勝敗는 여하이되엇든 吾人은 이爭議를 經驗하면서 平壤의 勞働者階級이 爭議를 展開할에는 民族差別이 업섯다는 事實을 보다. 이것을 必然的 事件이라고만 看過할것이 아니다. 그 勝敗를 論하고십지안타 資本階級에게 떠러진 勝利와 勞働階級의 痛快한 鬪爭意識 그것이 體驗上 事實化한것은 庚午年 平壤勞働運動에 一大 事實이라 아니할수업다

共濟고무工場

로동두쟁계속

비롯 勞働者 慘敗의 자최를 남기엇다하나 저! 共濟生産組合의 共濟고무工場은 이들이 側面으로 그鬪爭을 依然히 繼續한다는것이 아니냐? 共濟고무의 울리는 雄大한 싸이렌聲은 날마다 써써로 平壤의 天空을 울리우고잇다 그容氣波動! 이것은 一秒동안에도 몃번式 이 地球를 旋回하고잇다 勞働者의 피人속에 울리우고잇다 그만케도 洋靴職工罷業와 그他의 部分的罷業가 두세번잇섯다 平壤의 勞働運動은 이제와서 一部「인테리겐챠」의 運動이 아니다

槿友會舘新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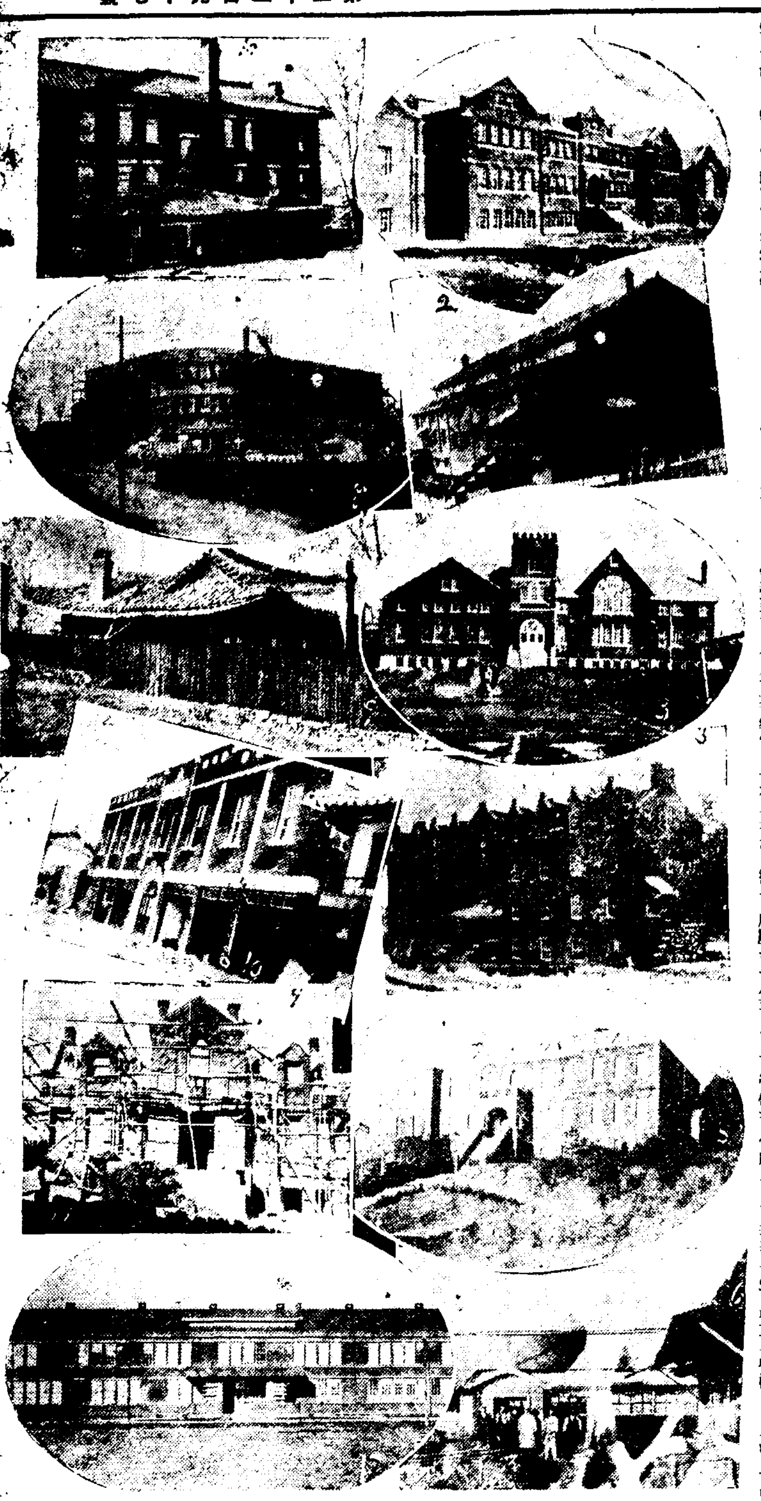
女子實業獎勵會組織

평안도 녀자의 남성적 긔혼

括目할 平壤女性運動

平安道女子의 男性的氣魄! 이것은 朝鮮사람의 共通的常識으로써 알고남은바이다 果然 各方面을通하야 生長하는 平壤의 女性運動이야말로 가장 長足의 進步와 最大의 收穫이 잇섯다 女性運動의 總本營이요 唯一한 權威團體로써 이제와서는 全平壤女性의 支持를 밧고잇는 槿友會平壤支會는 一切로 私生活을 돌본바이업시 늙은몸의 餘命을 槿友會의 基礎工事에 달게 바치는 趙信聖女史를 中央執行委員長으로 擁立하야가지고 會員五百餘名은 오로지 先生의 指導와 統制밋에서 어느 男性의 社會團體보다도 상존하는 關爭을 繼續하고잇다 더욱히 庚午年 이해야말로 槿友會平壤支會가 劃時期的 大事業을 完成한해다. 그것은 무슨것엄시 支會의 建築落成이다. 同支會館은 平壤의 繁華街인 西門通을 등지고 聳立하야 그 建坪이 六十餘坪의 二層煉瓦製仕屋으로서 그 偉觀을 자랑하고잇다. 이란을 누가 작은집이라하랴! 이집이야말로 朝鮮에잇서서 百餘 槿友支會中에 嚆矢가아니냐?

이집이 생기기까지 趙信聖女史의 피와 기름이 얼마나 흘럿스며 女史는 義로써發한 激憤과 怒號가 한두번이 엇느냐? 그러나 先生에게는 如前히 그가슴속에 살른 事業熱과 어느 男子가 따르지못할 雄圖가 經綸되고잇나니 이제 다시 先生은 女子의 生命機關組織을 目標로 「女子의 經濟的意識을 促進할 失業女子의 職業獲得을 圖謀할」이라는 綱領을 걸고 女子實業獎勵會를 組織하얏다 우리는 先生의 그 꾸준한 努力과 一路邁進에 退步를 最大의 慚愧로 삼는 그 氣魄을 갈아는바이매 庚午年에 呱呱의 聲을친 女子實業獎勵會가 辛未年이 가기前에 그 形態를 가추워 出現할것을 確信한다 아프로 同會에서 于先「메리야스」工場設立에 뜻을 둔다하니 不遠한將來에 婦女의손으로 婦女의工場이 생길것을 미더둔다 우리가 여르든 朝鮮情勢를 말하야 會社運動의 悲觀論을 主張하든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悲觀을 禁物삼지안흘수업다 平壤의女性을 배호자 그들도 落望할條件과 失敗할理由가 만타 그러나 그들의손으로 되는일을 보자 그들은 오늘날까지 柔弱한人間으로서 經濟的活動圈內에서 除籍된 사람이 아니냐? 그래도 그들의손으로 平壤어느 男性團體보다 먼저 四圍의 事情을 하고잇는 사히에 六千圓의 建會館을 거더 훌륭한 會館을 建立하고 그들의손으로 또다시 「工場」出現을 企待하게 되지안켓나? 우리는 여기서 庚午年 平壤의 女性運動이 그 主旨로 살은바 婦女階級의 啓蒙運動에서 一步進하야 經濟的으로 進出活躍하는것을 보게된다— 이것이 庚午年 平壤女性運動의 括目할 進出이다



◇寫眞說明◇

(1)平壤女高 (2)崇專講堂 (3)光成高大講堂 (4)崇專寄宿舍 (5)崇仁商校 (6)平元고무工場 (7)崇義學校寄宿舍 (8)女子高普 (9)盲啞學校 (10)槿友支會舘 (11)鳳鳴學院 (12)師範學校

◇宣川◇

宣川本町 支那料理 三國軒 電話一七番

宣川金融組合 組合長 李泳贊

宣川 理事 誠谷謙詩

宣川 平安北道評議員 崔鳳浚 電話六七番

宣川 釀酒業 宣興商會 電話六番

宣川 商工鐵工所 電話一四五番

宣川本町 シンガーミシン會社分店 金基輔

宣川本町 鑛業 朴義敬 林京範 電話七〇番

鑛業 金致元

宣川電氣株式會社 電話一二一番

宣川本町 宣川印刷所 電話一〇四番

宣川面事務所

宣川郡台山面事務所職員一同

宣川郡守 李鍾殷

宣川本町 米國택사쓰會社平北總代理店 太陽商會 電話一二四番 振替京城一四八五九番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全基弘

宣川驛前 大昌運送店 電話六三番

宣川驛前 普興運送部 電話二三番

宣川 救世醫院 金迺興 電話一一七番

宣川驛前 源興商會運送部 電話二九番

宣川公立普通學校

宣川 信聖學校

宣川 保聖女學校

宣川自動車商會 張應乾 電話一一五番

宣川邑內 鑛業 金麗、華

宣川本町 松林金銀鑛事務所 電話一三八番

宣川 平安材木商會 宋洪均 電話一三九番

宣川 釀酒業 廣成商會

宣川郡廳

朝鮮運送株式會社 宣川驛代行營業所 代表者 岸本吉尾 電話九番

宣川郡南面三峯洞 博愛醫院 朱秉均

利權探査

住民의抗爭二十年 流血의慘劇까지 (三)

◇……二천 주민의사활을 지배하는문제
◇……한때는 동경중의원시 문제까지

永興灣猪島의굴漁場

【영흥】아직도세인의귀에새로울만큼 동시바야흐로침예화하는 함경남도영흥만커도모려채취어장(永興灣猪島牡蠣採取漁場)문제는 과거수십년동안 류혈(流血)의 희생까지 내엇고 또는 수만원의 사재(私財)를 업새여가면서 항쟁하야 오는 연안일대에 흐터진二천여명지원주민의 사활(死活)을 지배하는 주대사건으로 싸와온려사가 가프니만큼 장차이문제의전개는 자못주목되는바 이문제는 권리영흥만연안일대에산재한주민으로 조직되커도포개포어조합(猪島捕介捕漁組合)에서 취급하는동시 그조합 조합장 윤주환(尹周煥)씨외련홍업(李洪業)리정숙(李正淑)신홍석(申弘石)최병고(崔琡岐)동제씨의 조종하는이라한다

流血의 희생도잇서 世人을 驚動케하야

영흥커도(永興猪島)를 중심삼은 연안일대에 흐터진사백여호의 二천여명주민은수백년전넷날부터 조선인의손으로개발하야 그부근바다에서생산하는 굴(牡蠣)을따서 팔고먹은것을 유일한 생업으로삼어 가장오래려사와 연고(緣故)를가진 그어장은 룡희(隆熙)三년에 리권(利權)에눈밝은횡산한태랑(橫山寅太郎)이가 그채취권(採取權)을독점하야 버려엇다。

이것을 유일한생업으로 삼고잇든 二천여주민은암지도못하는사이에 그권리를쌔앗기는통시에 생로(生路)가끈허지엇슴으로 횡산과 싸우다가 대정三년에는 일대큰폭동이일어나서 주민측에二명 의사망자와二十여명의 수형자(受刑者)라는자

ㅅ해에사못치는 류혈의희생까지 내인참사가잇섯슴은온당시에 세민들을 경동(驚動)케한바어니와 이사실만으로보아도이곳주민의생활과엇마나제가

밀접한관계가 잇는가를가히알수잇는바마츰내 목적은일우지못하고 오직 그리권자횡산의 고용사리로 종구를하야 오다가 제일차횡산의 리권기간(利權期間)이 만료(滿了)되는대정八년十二월에 하야바든주미들은 다시금 결속하야 이번든 어장을반환(返還)하야달라는 운동이 개막되엇섯다 (續)

窮頒은捕介捕漁組合과그幹部

投稿歡迎

◇投稿規程◇

一、多數住民의 生活에直接間接으로關係되는 未墾地、草原、池沼、林野、河川、溪谷、漁場、沙坪、採石場、鑛山、等等其他로
一、多數住民의 生活에 直接間接으로 關係를가지고 잇는것으로 在來의 慣例로던지 官廳의 默認으로던지 許可로던지間에 旣得權利——假令生產權、製造權、採取權、買入權、販賣權、使用權、取扱權、賃借權、等等其他로
一、個人이나 一會社、一團體에 一時的或은 永久的으로 過去나 未來를勿論하고 問題되는 大小一切의 權利
一、原稿의 長短은 隨意로하되 可及的寫眞을添付할것(寫眞은實費進呈)
一、發表되는 原稿는 薄謝進呈
一、期限은 本二十日限

乘夜逃走者續出

平原東松面에 벌서十餘戶

빗쟁이에 견디지못하야 舊歲末찰하漸漸增加

【숙천】평남평원군동송면순자리(平原郡東松面荇子里)에서는 다 소위금년풍년은 곡가폭락으로 전화이태심한데다 풍년빙사년탈이라 빗에졸리여 차순장리하고 각지주뇌 고통한 소작료형래(東淳具李方泰)외十여호가와 채주(債主)들의 가혹한독촉방을타서 도망을갓다는데 이곳파공파금十여종의 잡종금까지 온천번바재로 인하여 수확도천 정리하는동에 눈고를 또지못하무한때 게다가 곡가가폭락하여 게되여 첩석가티 굿은결심도 차금의리자는커녕 당장 살길이 이고동에는 못이긔여 러비반망연하다하며 한동리십여 호가변동되던 밤으로 새벽으로집떠나는니만치 이심이 흉흉하기를비우고파산도주(破産逃走)자착이업다는데 세밀을당하면 도가 날로약출되는 모양인데 각채주안흉차 별로업겟다는 현상임 산가측은 내불안을 늣긴다한다 으로 면사무소와 주재소에서는 그대책을 강구중이라한다

龍川도一名

【남시】평북룡천군(龍川郡)남시면에서는미가 참혹으로야간도주하는 사람

高敞에도續出 날로늘어가

【고창】전북고창군(全北高敞郡)은과거二四년간 흉년여독에 남시동(南市洞)에거주하는청재 순씨가 남의빗에 쫄리어또어며 이만호중 지난十二월二十일에 로인지도망하야버렷다고한다

市場商民도 陳情準備中

천긔도청문제로 인심이 소란한 공주의 시장(市場)에서상업하는 거주민도 만약도청이 이전된다면 상업에 관로을받긔사활것을 면치못할큰문제라고 시상거주민 삼백여명도 총독부에 진정코저 지난三十일부터 준비하야 금명간상경할터이라한다

庫底幼稚園 同情音樂會

【고저】고저유치원(庫底幼稚園)에서는 동사의경비를엇기위하야 지난二十七일 오후七시부터 유치원동정음악회(同情音樂會)를 동명보육학교무강당에서 개최하얏는데 순서를따라 나오는 천진란만한원아의노래와 표정유희는 만당청중의 박수갈채를 바덧스며 기타명창의노릿악사들의독창 합창 기악등의 재미스러운 순서가잇서 실로 근래에 보기드믄대성황을 일우엇는바 동정금도 다음과가티잇섯다한다

金一圓朴尙石、無名氏、金一圓土屋、李聖淳、金贊濟、南台熙、金五十錢金鉉元、徐廷珊、朱日男、金吉圓、金滿鍋、朴永柏、金東熄、徐丙彥、尹蒙老、李志云、李乃化、金永旭、崔在回、金在浩、尹鶴守、金龍浩、金秉道、安卑水、金永贊、洪淳序、韓宗浩、張春栽村(以下略)

「總督府方針은 道廳을不移」

충남도청이전방지운동 公州陳情結果報告

【공주】공주에서는 충남도청 이전 방지운동을 진행중 지난 二十七일밤에 동경으로부터 공주에 전보한장이 도착되어 그 밤으로 갑작이 총독부진정위원으로 환산시민회장(丸山市民會長)이하 十이올 선택하야 그밤으로 상경하얏는바 전긔진정위원을 상경시키고 회소식을 기다리든중 지난三十일밤에 진정위원이 돌아온다는 소식을바든 시민 남녀 수백명은 당면소(面所)에 쇄도하는일방 三四十명 임마는 조치원 자동차부에 영하야 몽야十시에 상경위원일행이 도착하며 만일을념려하는 경관대는 사복으로 수十명이출동하야 검시하다가 필경은 소림면장(小林面長)과 환산회장(丸山會長)을 당서로 소환하야 보고에대한 주의를시키고 면소에 가대한 三四백명 모인군중에대하야 진정한결과는 경관의 간섭으로 불철저한 보고가되어 군중은 더욱궁금히해산되어 다시 의일밤에 보고회급대책을결한다

칭하기로하얏는데 그날밤에 보고한 총독부당국의 의향은 도청을 이전할 계획이 아니라는것이다

儒林도蹶起 총독부에진정

도청이전문제에관하야 일반군민의사활문제인만치 당지유림(儒林)측전병호(全炳鎬)류갑수(柳甲秀)씨등은 군내거주 유림사십여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야 얼마전에 전긔 전병호 류갑수 리석(橫內勳、柳甲秀、李錫)씨등 三인이 대표로상경하야 총독부에진정서를 제출하고왓다는데 그진정외 요지는 신라(新羅)이후 백제(百濟)왕도로부터 一천수백년의 력사가 기픈공주(公州)며리조오백년(李朝五百年)이래 관찰도로량반이 옴거하게되야 생활의 자미를 잡고잇든터에 만약 도청이 이전이되고본다면 유림들의 잔명을 보존할길이업서 진다는것이라한다

三浪檢査所의 叺子檢査에不平

삼랑진면외에는 거절해 製叺家들의怨高

【밀양】경남밀양군삼랑진면락 랑장을보아서 먹고사는데 불시동강역전(密陽郡三浪津面洛東江驛前)에잇는 가마니(叺子)검 에 다른곳으로 가라는의미를알 수업다하며 검사를 한가마니를 사소에서는 진년부터 삼랑진면 경남승립회사(慶南繩叺會社)에 과괴외동군 상남면(上南面)일 만팔게하고다른곳에서、개에一부와 하남면(下南面)일부와또 진식면주는데에는가지가지도못 그략동강 건너편인김해군 생림 하고만일가지가면등금을나리고 면(金海郡生林面)일부사람들이 또가마니를 풀어헷치서 손숩다 지리상관계로 가마니를 만들어 이기권에경남가마니회사사람들 서삼랑진에가서 팔든바 근일에 이주어 묵거가고 또만 되는데 와서는 그생산수가 잇던상날은 보주나 이러구야 어씻삽수잇나 만개이상으로 모히며 현재로 하고 일반생산자들은이러 커리 청(十井)검사는 그것을 아주실 불러어 다니며 또지난二十日 허하는비치 보히며 삼랑진면이 상날에도 만흔 가마니를 가지 외에는 가마니를 가져오면비원 온 사람들을 세워두고 검사를 벌금을한다하고 검사를 하여주 하야주지 아니한다 하야 그가 지아니하며 지리관계로 다른곳 마니를 상날마다 팔아서 먹고 으로 가기어려운 그들은엇지할 살든 그들은 검사에게 대한 불 줄모르고잇스며 수백년래로 살 왕이 날로 노파간다한다

松岳水利組設立을反對

수리조합이 손해된다고 四個面이同一步調

충남아산군(忠南牙山郡)에는온양수리조합(溫陽水利組合)과 도고수리조합(道高水利組合)이 차케로 설립되야 동리지소작인는농사를지어도 조입비를불고 남은것이업다는것으로 원칙이 노외잇튼중에 동도당국에서 송악수리조합(松岳水利組合)을 또창설하랴함으로 재년十二월三十一일 오후一시반부터 동二시반까지 동군송악면에 토지를 두고잇는 지주(地主)二十九명이 동면역촌리(驛村里)에 회합하야 송악수리조합창설(松岳水利組合創設)반대운동을 개시하고 과장은 리준규(李濬珪)씨로 추천한후 압에와가튼 결의를하고 동군온양(溫陽) 배방(排芳) 탕정(湯井) 세면에서도 역시송악면과가티 동일한반대 운동을 개시하얏다한다

一、隣面及官廳交涉委員李用瑚 李峻珪 安炳郁
一、事務執行은委員에게一任
一、瀛川辦償은各格別로地主負擔

報恩의小火

【보은】지난二十九일오후 한시가령하야 보은읍내시장(報恩邑內市場)에서우육업(牛肉業)하는 조해선(趙海仙)의 집에서불이나서마츰시장(市日)관계로 대호잡음은 이르켯는데 원인과 손해는방금조사중이다

再次市民大會

電料減下問題로 오는四일에 다시 시민회 海州市民態度强硬

【해주】물가인하를 하고저 해주시민대회에서 二十명의 실행위원으로하여곰 각방면의 업주를 방문하고 활동하든바 그간 각방면의 교섭진말보고와 지금까지 강경한 전긔회사(電氣會社)에 대한 철저한대책을 연구코저 재작일 오후一시에 다시시민대회를 개최키로하엿다 한다

結婚期압두고 青年結項自殺

【례천】경북례천읍로하동(醴泉邑路下洞)황의수(黃益洙)(二三)은 지난二十九일밤 음연 목을매여 자살하얏는데 그원인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건괴영천군 풍산(豊山)으로 약혼(約婚)하야 결혼날도 얼마남지아니하야 그와가티 결항자살하얏슴으로 일반은 매우이상하게생각한다고한다

慶南彌助港에 飮料水不足

◇먹을물이업서 야단들 六百餘戶住民困境

【미조】경남미조항(慶南彌助港)은 지원주민六백여호가잇는 수산회사(水産會社)발동선외 각종어선등이 잇고 풍파가 심할때는 무려수백척이 집합하는 미조인바 음료수(飲料水)가 부족하야 곤난한은 이로말할수업는바인데 더구나 매년동괴를 당하면 二十여정호(井戶)가 간부맏나버리는 와평으로 수원(水源)이 실치못한 약간의정호에 주민들과 선원들은치위를무릅쓰고 물길기가곤격정이라한다

高敞高普負擔金

【고창】지난二十九일까지부담금신입상황은 압에와갓다한다

▲金炳默七八八、五二▲李鍋奎七四六、四九▲金永泰三、一、八四四▲金永燮六五、七二▲鄭務英一一二、九六▲金鍾默八〇、一四▲李孔雨八七九、二九▲李鋪馨二四一、四五▲陳奎馨一五五、九六▲소幸中六〇、七九鄭海鈞二、一〇八、〇七▲金吉中一八六、六一〇▲李奎承二一六、八七▲李淑承二九七、九六小計一四八六七〇〇圓七八 累計一八一二人四九、一七一圓七三

不平欄

葉書로 口頭로 本報支分局에 알녀일

【問】小作料三分之二를地主에게 納付하니 남는것이업서서 作農하나마나하오니 좀 내릴수업소(運動小作人朴基杜)

【答】小作人이 利益이업다면 作樵을 버릇는수밧게 더잇소(地主金容極)

【問】朝鮮人村落 完山町은 日本人사는 大正町等地에 比하야 모든施設에 差別을하니 어쩐일이오(一市民)

【答】그럴理가잇슴니까 그러나 더욱注意하야 公平하게 하지오(副面長)

孟山煙草代 二萬八千圓

【맹산】평남맹산군 연초경작조합(孟山郡煙草耕作組合)에서는 소화오년도(昭和五年度)일개년간 연초판매액을 조사하여보건대 二만八천二백六十一원二十五전에 달한다는데 이맹산군에서소비한 담배대금이면 소학교 한개는 염려업시 경영하겟다한다

陝川記者同盟 지난卅일창립

【합천】경남합천(陝川)에서 긔자동맹(記者同盟)을 발긔하야 다향은 진난보도한바어니와 지난三十일 오후二시경에 당지중외지국에서 창립총회(創立總會)를 림시의장 정순종(鄭淳鐘)씨 사회하에 개최하고 다음과가티 규약과의안통과와 임원선거가 잇섯스며 또동맹주최로 농민대회를 개최하려든것은 사정에 의하야 당분간중지하기로하얏다한다

▲任員=委員長鄭淳鐘▲庶務兼財政部李周洪▲調查部鄭元祚▲研究部鄭淳鎬
▲規約(略)
▲議案=一、言論에關한件(略)二、郡內朝鮮人經濟狀況調査의件四、地主對小作人問題에關한件五、郡行政에關한件六、專賣局員의橫暴에關한件七、教育問題에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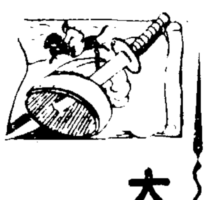
謹告

『米價暴落과 農村實情』이라는題下에 各地方의 小農生活狀態를 一日附二日附로二回에分하야發表하야 잇섯고아즉도數十處의 材料가蒐集되엇스나 目下의 時價暴落한 暗黑面이라하야當局의 忌諱에抵觸하야 各處의 統計的基礎는 달으다하더라드 本社로서보아도 不得已中止하기로 하엿슴니다筆者와및讀者諸位는此意를諒解하야주심을바람니다

一月一日 東亞日報社

大盜傳 (3)

【後篇】 尹白南 作 漢北居士 畵



前篇梗槪 (三)

사람의자식되어 부모의원수를 아니갑흘수업는일이나 비록 은의가잇다 하드라도 명두목을 아니죽일수업다 그러나 이로해서 에어인 란영을읽키는참으로가는이아펏다

도리와、은히와 연애、이세가지가 무룡의가슴에 엄키어서 며츨밤을새웟다 국도의 신경쇠약에싸젓다

무룡은 스스로 목숨을끈허서 애가지——도리、은의、연애ㅣ 어느것에도손을대지 안코말어버릴까하는생각까지먹어보기도햇다 그러나 자긔몸에는그세가지외에 또하나 커다란원수가잇는것을 알엇다 그것은공민왕이 인군으로게신 고려조(高麗朝)이엇다

아버지가 맹학에게 마저죽은 원인을생각하면 공민왕의임과가과(奇)가의일파를면적으로몰아죽임에잇다 만약 이런일이업섯다면 아버지가 망명해슬리도업고 말하서 맹두목의손에횡사할까닭도 업다

그러타 큰원수는 공민왕의고려조정이다 이것을 뒤집어엎허는것이오 달하서 부친의원수를갑는것이다 이러한생각이 목룡의가슴에 생겻다

무룡이 이러한 고민을하는동안에 란영은 란영대로의 가련한고통을하얏다 그것은 에이무룡의태도가 돌변하얏다는 번민이엇다

자긔를맛나기만하면 사랑다운미소와 다정한말을 더커주던무룡이 권로인이 세상을버린후로는 금작이 태도가변하야 자주 맛날괴히도 주지안으려니와 어서다가 맛나는때에도 존과가튼 미소와다정한말을 바다볼수가업섯다

이것을 간단히 부친을 일흔슬픔이라고만 해석해바린수업는 무엇이 잇는것을 란영은 깨다랏다 그래서 그는 그무엇이란 정체를찾기위해서 고심햇다 그러나 아모리 생각해보아도 원인을 차자낼수는업섯다

어려해서 하로는 란영이 무룡을맛나서 눈물로써 질문햇다 무룡은 대답하기가 난처햇스나 결국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아니할수가업섯다 그러고 쇠뎨

『란영이……나에게 사내노릇을 시켜주……』

라는 말로 암암히 두독에게 원수를갑겟다는뜻을 표시하게되엇다

란영은 대답할길을 다지못햇다 그래서 그자리에 업데어서 울엇다

이날밤 무룡은 밝은 달압에에서 칼을갈앗다 먼저 두목을 죽이고나서 산채를 떠나고국으로 아주 보지못한 따으로 큰 원수를 갑흐려 가려는결심이엇다

이날밤 수업전부터 무룡의행동을 수상히 녀기고 이던 부두목 박달(朴達)이 밤에 잠을사지안코 무룡의 거동을 살펴나 그러다가 무룡이 두목의 집으로 가는것을보고 뛰더나와서 길을막고

『이놈아 이밤중에 고양이 쌩으로 란영이의 내색을 맛고 뒤ㅅ문으로 살악 들어가려고 그따위 누추ㄴ 짓은 마라』

하는것이 도회선이채서 무룡과 박달사이에 격투가이러나마츰내 박달은 무룡의칼에마저죽고 무룡은 흥분된괴세로 그길로 두목의초막으로 뛰어들어가서 단하번에 두목의목을 쌉으랴다가 그릇하야 명학의 장을쌔치매 이에 비장한 격투의막이 열렷다

그러나 비력이 원동한 명학은 무룡을 메다치고 장차 한칼에 버히려는 찰라에 젓방으로서 란영이 뛰어나와 아버지의아플막으며

『무룡을 죽이려거던 나와함께 죽여주시오』

하며 무룡은 권로인의 아들이 아니라 절벽에서 강으로 몸을 던저 무참히 객사한녀인의 아들이엇드란말을하야 아버이 두목의 반성을 바랏다

명두목은 일이 너머나 뜻밧김에 놀랏고 그순간에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진리를 깨다랏다

명두목은 원래무빈출신이라 비록 록림에 몸을던젓슬망정그의 깁흔속에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정에 흥분하기쉬운 피가흐르고잇섯다 그럼으로 그는 무룡의목을버히려든칼로 자긔의가슴을 찔럿다 그러고

『나의목을버혀서 원수를갑하라 그러나 나는 너를 남자다운남자로녀기고 마지막의 부탁이잇스니 그것은 이의지가지업는 란영을 안해로삼어 평생을 살어다우』

하는 비장한 부탁을남기고 그자리에업더저죽엇다 무룡은 차마 두목의목에칼을댈수업섯다 도리어 두목의비장한최후에통곡을하얏다 두목의장례를지낸지수일후에 무룡은 안해 란영을더리고 산채를떠낫다 찻벗과가튼 안개가자옥한틈으로 솟아오르는 해를 축복하는듯이 무룡의장래를 축복하는듯 밤이 잇게 새칠때에 무룡 내외는 여러동료들과 작별하고 산을나려왓다

謹告

任雲田分局長 朱炳學
雲田分局長 金希京 依願解職
今般右와如히雲田分局을變更하얏삽기玆에謹告하나이다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 定州支局

任西面分局長 姜在殷
今般右와如히西面에分局을設置하얏삽기玆에謹告하나이다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 東萊支局

康喆熙
任總務兼記者 鄭樂瑞
任顧問 金柄宜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 前川分局

任記者 金泰郁
昭和六年一月一日 東亞日報社 滿浦分局

謹賀新年

◇宣川◇

宣川 仁濟病院 電話五九番
宣川本町 壽山醫院 李昌鎬 電話五四番
宣川驛前 火藥商 谷口合資會社 電話二五番
宣川 會席料理 迎波亭
宣川郡深川面 金永禮
宣川本町 西洋雜貨商 盧鳳瑞
宣川本町 英米屋洋服店 主 鄭洛順
宣川驛前 材木販賣 森盛木工場 主 李德均
宣川邑內 鑛物分析所 崔相稷
宣川本町 雜貨卸商 慶興德支店 電話五二番
宣川邑內 精米業 宣川貿易社 金允根
宣川 興盛唐麵工廠 主 鄭洛承
宣川邑內 穀物ゴム商 金永鎭 電話一三七番
宣川驛前 新興社 貨物自動車部 電話六九番
宣川本町 ビクター蓄音機一手販賣店 金敬贊商店
宣川 財團法人 明信學校

宣川本町 代書業 崔俊三 電話一〇三番
宣川邑內 田洛浩 電話一一九番
宣川本町 大成洋服店 主 金宗弘
宣川邑內 韓暎寫眞館
宣川本町 第一洋服店 崔順福
宣川本町 本町旅館 電話一一三番
宣川本町 金剛洋靴店
宣川驛前 青山木工場 朴寶斌
鐵城 白瑞鶴
宣川警察署 職員一同
宣川郡庶務主任 齊野喜一 電話一一〇番
宣川基督教青年會
宣川邑內 米雜穀 李成贊 電話一三四番
鐵城新市 布木商 郭在濤
宣川 天道教宗理院 代表 金德淵
宣川天道教宗理院長 金商說

鐵城新市 火藥、木物、洋木、雜貨 白日現商店
鐵城本市 米穀商 吳學行 吳律五
鐵城新市 金德元
鐵城郡砂器所 會長 朴致梧
新市旅館 主 朴熙元
鐵城新市 布木商 崔興寬 同 金奉鉉 同 金贊華 同 沈導源 同 金學龍 同 張履晏 同 鄭承道 同 鄭祉泰 同 劉泰恒
鐵城新市 砂器公會 職員一同
郵便所 職員一同
少年會代表 朴龍俊
三千里支社 元義植
基督教牧師 崔俊烈
鐵城新市 朴芝根 元大得 元貞玉 元五根
殖産銀行宣川支店長 西岡市次郞
面長 吳泰封
宣川本町 綿絲布木卸商 春盛永支店
宣川郵便局 職員一同
宣川邑內 會席料理 豐樂館 電話二一六番

◇安邊◇
安邊公人俱樂部
安邊邑內 盧鼎豐
金昌鎬
金鴻濬

ClibPDF - www.fastio.com

謹賀新年

◇定州◇

平北郭山驛前 우리生活必需品의全部는우리組合에
郭山消費組合

京義線郭山驛前 合資會社
郭山穀物商會

定州郡海山面
獐島漁業組合

平北郭山驛前 玄米製造穀物貿易商
東成商會

郭山金融組合

郭山驛前 醫師 李永根
南山醫院

定州郡 海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定州郡古邑面
金秉燁

定州郡古邑面
李春根

定州 私立五山普通學校

定州郡葛山面 面長
金舜濟

定州郡古邑面 面長
李臣圭

葛田驛前
李鍾斗

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販賣
光東商會
金仲植 韓光範

古邑驛前 綢緞布木
金鄭國商店

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販賣
日新商會
李學洙 李虎洙 李興烽

京義線古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㊁荷主運送店

古邑驛前 穀物牛皮貿易
新興商會

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買賣
南興商店
金昇銓

古邑驛前 日用雜貨綢緞布木
新興商店
金運銓

定州
五山高等普通學校

平北定州 關西農民運動者協會
全定州農民社

京義線古邑驛前
丸丁洋服店
盧德義 李鳳灝

平北定州郵便局前
永昌洋服店
主 金龍玨

平北定州 電話八番 振替京城一八三九九番
定州運輸組合

平北定州 印刷文具
新成堂印舖
主 金仁尙
一般次第冊錄進呈

定州邑內
定州印刷所
金亨萬 電話五五番

平北定州 朝鮮料理
第一館
主 崔聖談

平北定州
定遠旅館
朴寬涉

平北定州 解放社定州支社 三千里社定州支社
支社長 金道賢 總務 朱炳學

定州郡定州面
職員一同

平北定州 設備流行洋服調進附屬一式
裁衣堂
鄭聖杜

平北定州 朝鮮料理
食道園
主 金正洙

平北定州
泰和堂齒術院
姜泰鉉

平北定州 玄米業
定遠商會
白泰煜 電話五三番

定州城外
西鮮釀酒社

平北朔州橋洞
橋洞商店
(橋洞鑛業所用達)

定州郡
明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定州郡馬山面
塢川學校

平北定州 開闢社定州支社 大衆文光社定州支社
支社長 崔在善

定州郡觀舟面
職員一同

定州郡臨海面
職員一同

定州郡海山面
職員一同

京義線郭山驛前 國際通運株式會社取引店 鐵道貨物取扱
㊁荷主運送店

定州郡郭山面
金[illegible]近 金逵鎬 金亨泰 金尙鉉 尹致[illegible] 金起穆

平北郭山驛前 玄米製造穀物貿易肥料 農具一手販賣
興農社

定州五山 外科一般內科小兒科
五山醫院
醫師 趙震錫

京義線古邑驛前 玄米製造穀物貿易
郭山穀物商會

定州郡阿耳浦面
金叢聖

定州古邑面
金起湖

定州城外
淸眼醫院
院長 金鎭成 主 吉田貫一

平北定州
鴨江寫眞館
金永官

平北定州
文化洋服店
定遠麵屋
主 朴世勳 電話二九番

定州郡新安面松亭洞
趙昊淵

平北定州
定州醫院
公醫 李益鉉 電話六三番

平北定州
昌健醫院
院長 李昌健 電話六一番

平北定州
定遠殖産組合
組合長 白鴻濟 理事 卓宜翁 長電話二三番

平北定州
輔仁醫院
院長 盧輔根 電話七一番

平北定州 諸機械製造鑛山用諸機具
義昌鐵工所

安州郡雲谷面
安順金鑛
代表者 梁鎭煥

平北定州 新式和洋家具製造
定州木工場
主 李根柄

平北定州 建築金物鑄力細工各種硝子
定州鐵工所
主 朴承勳

平北定州曾成洋靴店
吳明植

定州郡馬山面
盧淑欽

定州郡葛山面
金璂植

京義線郭山驛前 米穀貿易商
金聲鉐商店

郭山驛前永淸商會
金國瑞

平北定州曾成理髮館
金命吉

定州古邑面
金文濟

定州五山 穀物及海産物各種食料雜貨
五山消費組合

定州郡古邑面 路峴醫院
白東旭

定州郡古邑面
李容善

定州郡古邑面
李鶴林

定州郡古邑面
李鶴壽

定州郡古邑面
李泰永

定州郡古邑面
李載根

定州郡古邑面
李德範

定州郡古邑面
李周永

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販賣
金應濟

古邑驛前 海陸物産朝鮮燒酒食料品
金洛亨商店

古邑驛前 玄米製造穀物貿易
三合商店

古邑驛前
金周伯

古邑驛前 朝鮮料理
永樂館

平北定州
定州記者同盟

定州臨海面
金仁壽

方應謨
定州邑內
長電話二三番

定州郡古邑面
白樂重

古邑驛前
鄭善淳

定州郡葛山面
文基輔

定州郡阿耳浦面 面長
趙麟均

古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古邑驛代行營業所

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買賣
雲興商店

古邑驛前
李仁澤

古邑驛前 精米 自轉車 洋靴製造
山海商店
趙鏞雲

古邑驛前 玄米製造穀物貿易
定州商會 古邑支店

定州郡古邑面
白樂敎

定州郡葛山面益城洞
五山下宿營業組合

定州古邑驛前新市
劉成祚

定州郡南面
方奎[illegible]

郭山
安部[illegible]

定州郡農會
定州郡畜産同業組合
定州郡森林組合

平安北道 道評議員
洪箕疇
定州郡安興面

平北定州邑內 和洋紙 文具 印刷 諸印刷
丸加印刷所
代表者 盧泳根
電話定州局一五六八 振替京城一五七七七番

橋洞鑛業所
盧義根
朔州

朔州郡外南面淸溪洞 鑛業
金致元
原籍 [illegible]

平北定州
定遠釀酒所
定遠精米所
主 文義鉉 電話六五番

◇利原◇

群仙港
高[illegible]

群仙港
私立新明學校一同

利原邑內 朝鮮料理
舞鶴樓

利原郡遮湖港 燒酒製造穀物貿易
遮湖釀酒會社
振替京城一九〇三六番

利原郡遮湖
遮湖公立普通學校

利原郡遮湖
國際通運株式會社
出張所

利原郡
遮湖漁業組合

利原郡
南面事務所一同

利原郡遮湖港
久保田旅館

利原邑內 利原釀酒會社
主任 金錫範 書記 趙誠千 同 劉庚烈

利原邑內市場通 邑興乾材藥房
利原群仙港 邑興藥房支店

群仙驛前
群仙勞働組

利原鐵山株式會社 支店
利原郡南面邑興里

利原郡邑
官民有志一同

利原邑市
中華同鄕會

利原群仙驛前 利原酒類會社 國際通運株式會社取引店

利原郡
東面事務所一同

利原群仙港 肥料魚油大豆米穀
金昌瑉商店

利原群仙港
金炳現商店

群仙港 日用雜貨綢緞布木
崔希琪商店

群仙港
京城杉山木炭部支店
[illegible]

群仙驛前 海陸物産委託穀物貿易商
高旺基商店

群仙市 綢緞綿布商
同[illegible]

群仙市 綢緞綿布商
協裕號

群仙市 綢緞綿布商
協[illegible]

群仙市 綢緞布木商
金寅泰商店

群仙市 海陸物商皮物貿易商
金國連

群仙驛前
㈠群仙合資運輸組

群仙驛前 海陸物産
江原商會 主 鄭錫昌

群仙驛前 穀物藥炭問屋
共益商店 薛彰東

◇淸州◇

淸安驛前
岡淸太郎

淸安驛前
劉興汝

淸州本町一丁目 朝鮮料理
泰平館
主 金泰鎭

淸州市場町 布木商
崔東善

淸州榮水町 朝鮮料理
永樂館
主 宋承哲
藝妓一同

淸州本町一丁目 金銀細工洋服專門
朴鍾憲 朴贊錫 朴敬學

忠淸北道
淸州醫院

淸州繁榮會 評議員
黃閏洙

淸州榮町 面協議員
李東洙

淸州本町一丁目 司法代書人
朴贊圭

淸州本町二丁目
淸州印刷所
電話二五五

淸州淸水町
池龍熙商店

淸州本町一丁目 飲食店
朱玉信

淸州面協議員
李東洙

淸州郡北二面事務所
吳永田

淸州郡北一面事務所
閔泳宰

淸州郡江內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州郡江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州郡玉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內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安驛前
橫山商會

淸州本町四丁目 米穀商
崔泰熙

淸州塔洞町
金世鉉

淸州
李熙俊

淸州布木商組合

淸州郡
梧倉釀造場

淸州淸水町
衡平社淸州支部一同

淸州郡江西面院坪里
鄭元謨

淸州本町一丁目
金京植

淸州本町四丁目
金元根

淸州郡江西面
閔泳麟

淸州本町一丁目
閔泳澤

淸州郡淸州面外德里
李相華

淸安驛前 米穀商
朴寅東

淸安驛前
曾坪釀造組合

淸安驛前 米穀商
朴晳圭

淸安驛前
宋景燮

曾坪面事務所
李敎泳

曾坪面事務所
洪觀植

淸安驛前 穀物商
安鳳濬

淸州西町
閔泳殷

淸州裁判所前 司法代書人
元田元吉

淸州本町二丁目
辰己屋

淸州郡內秀
北一酒造場
主 李聖燦

淸州本町四丁目
尖運送店